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복지국가란 현대 산업국가의 이념인 동시에 국가의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는 용어라 말할 수 있다. 사회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대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그 체제를 유지하는 대안적 선택으로 발전해 왔다. 복지국가는 사회경제적 변화 과정 속에서 등장한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극복하고자 하는 현실적 요청의 산물이다. 19세기의 이데올로기적 논쟁은 시민법 체계 하에서의 자유를 제일 목표로 내세우는 자본가측과 사회구조의 혁명을 통하여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근로자를 비롯한 무산대중의 마르크스주의 이념의 충돌로 집약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조절기능 *market mechanism*으로서 는 일익 심화되는 재산 및 소득의 불평등과 그것이 유발하는 사회계층간의 갈등과 대립,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없다는데서 자본체제의 골간을 본질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평등을 사회혁명의 방법이 아닌 제도적 장치 *institutional mechanism*를 통해서 달성해 보고자 하는 대안으로서 복지국가론이 등장하게 되었다(Wilensky and Lebeaux, 1965 ; 어윤배, 1994에서 재인용).

대부분 현대 국가는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국가의 통치 이념, 정체 또는 종교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는 국가 정책의 목표와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복지국가에서 복지의 개념은 포괄적 의미에서 사회적 이상향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

다. 즉, 국가 형성과 존재의 근본적 이유를 복지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가 복리와 안녕의 상태를 목표로 하는 이념이 아닌 인간의 생활 향상을 위한 수단이라고 볼 때 그 개념은 좀 더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오늘날 전문적이며 수단적 가치로서 ‘복지’는 자본주의와 민주 사회의 제도적 보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민주주의의 정신과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의 원칙을 따르는 자본주의 체제를 보완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적 선택인 것이다.

‘복지’는 그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영역에서 사회에 기여해 왔다. 이 중 공공복지는 사회복지 역사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겪었던 1920년대 이후 공공의 복지 정책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터반이 되었으며 복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제고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공공복지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면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었고, 따라서 민간 복지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여 점차 민간 복지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제는 복지국가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은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복지 정책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복지 부문의 지출은 국가 경제의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직도 절대적인 복지 예산이 부족하고 복지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지 않은 우리 나라의 경우 복지국가의 위기를 논하며 복지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복지의 합리성과 효율성 나아가 생산적 복지에 대한 요구는 복지에 대한 관심과 재정적 후원을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국가의 복지적 기능을 자연스럽게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청소년 복지는 분야가 아닌 대상을 중심으로 한 복지 서비스로서, 복지가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보호받아야 할 계층을 일차적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그리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아동 및 성인과는 달리 청소년은 실체가 있는 집단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생의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단계를 명칭화한 듯한 인상을 법과 제도적인 측면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청소년을 위한 복지의 합리성과 효율성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청소년 연령은 9세~24세까지이며, 이 연령의 인구는 12,858천여 명으로 추계된다(통계청, 1995). 청소년 인구의 절대적인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전 인구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8.7%로서 상당한 비율이다. 이 비율을 고려할 때, 산술적으로 청소년층을 위한 복지 비용은 국가 예산의 상당한 비중으로 할당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소년 복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예산으로 대다수의 청소년이 아닌 일부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중복성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청소년의 연령을 광범위하게 규정한 이유가 소위 성년자가 아닌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복지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고려하고 청소년 육성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청소년 복지를 고려할 때, 불우한 청소년의 중복적인 지원은 또 다른 복지 불균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의 한정된 복지 자원과 정책적 지원은 일부 청소년이 아닌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복지 지원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 같은 지원은 청소년 육성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복지와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복지수혜 대상으로서 청소년 계층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청소년 정책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정책 프로그램을 모색하기 위해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그 내용을 개발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에서의 복지 부문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청소년상은 ‘청소년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서의 사회심리적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청소년들이 미래지향적인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에서의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향유함으로써 그들의 생산적 가능성을 배가시키는 모습’이며,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복지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향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 복지는 아동 복지의 맥락에서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각종의 복지 서비스 또는 시책을 통해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들어 청소년 정책 분야가 국가의 공공 정책에 독립적인 분야로 자리잡음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정책적 대상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청소년 문화의 다양성과 사회 문화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새로운 소비 형태를 창출하는 청소년의 생활 양상 등이다. 그러나 청소년 복지의 주된 대상은 여전히 정상적인 청소년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구조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인 청소년으로서 제도적 분배 모형에 의하기보다는 잔여적 복지 모형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청소년이 ‘갇추어진 존재’가 아닌 ‘갇추어나가는 존재’라는 면에서 볼 때 이러한 잔여적인 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그들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성을 깊이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잔여적인 복지 서비스는 그 전달 체계의 전문성이 확보되었더라도 기본적으로 특정한 집단에게 시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과 문제가 되는 증상의 완화 또는 치료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오늘날의 복지 서비스는 잔여적 서비스 모형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기능을 강조한 제도적 분배 모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Richard Titumuss가 주장한 산업적 성취 및 업적 모형 *industrial achievement performance*은 복지모형의 이분법적 단순화를 극복한 새로운 차원의 모형으로서, 앞의 두 가지 모형을 절충하여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체계의 중요성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최소 생활의 국가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 그 대표적인 예가 사회보장과 사회 보험 그리고 각종의 심리적 사회적 지지 서비스 등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의 공적 복지 정책이 잔여적 서비스 모형에 의하여 입안·시행될 것인지 아니면 산업적 성취 및 업적 모형 또는 제도적 분배 모형에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합의는 없다. 단지 비정부 복지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고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 정상적이며 바람직하게 나타난다면 국가의 복지 정책이 좀 더 다양한 방향과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가 공공복지 정책의 서비스 모형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지라도, 연령과 성이라는 변인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시행하는 복지 정책은 산업적 성취 및 업적 모형의

1) Richard Titmuss의 삼분법적 복지 이념 모형은 Parker에 의해 자유방임,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주의형이라는 명칭으로 이해되었고, George and Wilding, Mishra 등은 삼분법의 복지 이념을 세분화하여 사분법의 복지 모형을 주장하고 있다(안청시, 최일섭 편, 1987 : 211-213 참조).

이념과 부합된다. 왜냐하면 연령과 성에 의한 대상 구분은 복지라는 개념에 근거한 계층적인 구분이라기 보다 정책적 개념에 근거한 인위적인 분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모형을 실현하는 전략은 이원화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실예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의 근간은 보건복지부로서 국가의 복지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여성과 청소년을 정책적 대상으로 삼는 정부 제 2장관실이나 문화체육부에서도 청소년 복지 정책이 주요한 기능 중의 일부로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 또는 여성의 복지 정책은 이원적 전략을 통해 제시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청소년 육성 정책의 한 면으로서 복지 정책은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그동안 아동 복지의 범주로 다루어 오던 청소년들을 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취급하게 된 이유는 복합적일 수 있다. 그 중 청소년 시기가 비록 아동에 비해서는 유리하지만 아직도 성인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기적 여건이 미비한 때라는데 주목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인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지원 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가난 등의 원인으로 고통받거나 소외받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조하는 것만으로 청소년 복지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엔 미흡한 감이 있다.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후에 누릴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와 환경의 조성은 청소년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이미 사회에 던져진 존재라는 점에서 아동과는 다르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는 공정한 성장 환경의 조성에 더 많은 강조가 있어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은 세가지 개념에 기초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보편성, 효율성 그리고 서비스의 적극적 제공이 그것이다.

청소년복지를 위한 정책은 다른 복지 정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다. 그럼에도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통해 새로운 청소년 복지 정책을 수립하려는 의도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건실한 노동력의 장기적인 확보이다.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연령층이 무한한 노동의 잠재력을 가진 24세의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아동기를 지난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아동복지법의 대상 범위를 벗어난 연령층)은 현실적인 노동가능인력인 동시에 장차 국가 인력 자원의 핵심이다.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내에서의 복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도덕성과 노동 가치가 요구된다. 심한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를 목표로 교육시킨다는 것은 무모하여 그 복지 서비스의 결과를 확연히 볼 수 없으며 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생산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시장경제 체제에서 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생산성 및 그 결과로서 노동의 가치가 연계되지 않은 복지는 복지 후원자 또는 공급자에게 제시할 설득력이 약하다(여기서 말하는 복지는 단순한 구호나 자선이 아닌 공공 정책에서의 복지 비용을 의미한다). 더구나 복지간접자본이 특정한 청소년들이나 빈곤 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뜻한다고 할 때 서비스의 결과는 보다 명확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은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와 참여를 제고시키는 기능을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청소년 건전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각종의 통신 매체와 정보산업의 발달로 청소년들의 환경 자체가 크게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해 환경에 항상 노출되는 공개된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유해 환경

의 제거 또는 방지에 따른 노력도 복지적 서비스가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면에서 조망하자면 유익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청소년복지간접 자본은 유익 환경의 시설과 프로그램 유지 관리를 체계화하는 종합적인 체계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노동력 개발과 유익 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병합시키는 의도 아래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며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 체계를 복지간접자본의 개념 속에 수용하고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다. 이러한 개발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경제적 여력과 환경에 관계없이 복지 정책의 수혜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청소년 복지간접자본을 개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복지의 고려 대상으로서 청소년의 욕구는 무엇인가?

둘째,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자원의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그러한 자원의 배분이 청소년의 복지와 사회적 정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가?

넷째,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이 사회복지 전체에서 어떤 의미와 맥락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적 효용성은 인정될 수 있는가?

3. 연구의 방법

전체적으로 본 연구는 위에서 제기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

정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청소년의 복지 환경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 설문은 학생과 직업전문학교 학생(직업훈련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 청소년이 대다수인 우리 사회에서 직업전문학교 학생도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 사회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소외 계층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교육 아래 그들이 놓여 있지 않아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좀 더 자유로운 청소년들의 욕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왜냐하면 외견상 그들은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서 의무를 요구받는 반면에 성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오늘날 무한히 제공될 수 없는 복지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분과 분배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복지 국가의 이념적 성취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되어 왔다. 청소년을 위한 복지간접자본 또한 이러한 복지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문제를 어떻게 수용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여기서는 복지를 지향하는 경제적 관점, 특히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셋째, 복지간접자본이 아무리 우수하고 그것의 효율성과 효과성, 생산성, 나아가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할지라도 청소년 복지와 사회적 정의에 위배된다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복지간접자본의 윤리성과 사회적 정의를 내포할 수 있는 가라는 주요한 철학적 과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이 사회복지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으며 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일은 전체 복지 속에서 청소년간접복지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이 질문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본 연구의 종결점이 될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청소년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특정한 집단에 대한 시혜적인 성격이 아니라 보편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제공해 주는 정책적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청소년복지 간접자본을 개발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의 내용 및 방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청소년 복지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복지 비용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하는 설문 조사에서 그 대상 영역을 서울로 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문 대상 표본 또한 고등학생과 직업전문학교학생 만으로 제한하였으며 이 비율 또한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청소년복지간접자원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학문적 논의를 거쳐 형성된 개념이 아니라 본 연구자가 경제학의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개념에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로 그 개념을 한정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청소년복지의 패러다임

청소년 복지는 학술적으로 개념화된 용어는 아니다. 사회복지 관점에서 보면 아동 복지의 분야와 중복되며 청소년 정책적 차원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9세~24세까지의 청소년을 위한 각종의 사회적 서비스를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청소년을 학문의 연구 대상으로 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청소년 복지’에 대한 개념화도 시도되고 있다. 김성이는 “사회복지 학계에서의 청소년 복지는 아직까지 아동 복지의 한 부분으로 종속되어 있고, 청소년 복지가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도 못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김성이, 1990). 이에 대해 이용교는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라는 용어와 함께 ‘아동 복지’와 ‘청소년 복지’란 낱말을 각기 사용하고 청소년복지를 아동복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몇 가지 증거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고 있으며 그 내용도 범주화시키고 있어” 아직 ‘청소년복지’의 개념 정립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다.

-
- 2) 이용교는 한국사회복지학의 평가(1992)의 청소년 복지 부문 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간행한 ‘사회복지’ 통권 86호(1985)를 제시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아동복지서비스, 청소년복지서비스, 여성 복지 서비스, 노인 복지 서비스로 나누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대책”에서 성경육이 청소년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가정상황분야와 서비스의 내용, 경제생활분야와 서비스의 내용, 건강생활분야와 서비스의 내용, 교육분야와 서비스의 내용, 여가생활분야와 서비스의 내용, 노동분야와 서비스의 내용, 특수보호분야와 서비스의 내용 등 육구별 서비스를 열거하면서 광의의 청소년복지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청소년복지를 개념화하기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 및 청소년복지권리에 대한 이해이다. 청소년은 정책 대상으로서의 정확한 실체가 없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거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자격과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따라서 그간의 청소년을 위한 복지적 관심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의 박탈 또는 소외에 대한 대응이라기 보다는 당연히 지원해야 할 사회적 의무라고 보아 왔다. 그런데 이 사회적 의무는 성인들의 형편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져 왔으며 청소년을 좀 소홀히 한다고 해도 사회 체계의 유지와 지속에는 별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성인들의 시혜적인 태도 속에서 다루어져 왔다.

둘째는 아동 복지와와의 관계이다. 아동 복지는 그 법적 규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대책을 실시하려는 데에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김유성, 1985). 이러한 아동 복지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있어 청소년이 9세~24세까지로 규정된 것으로 보면 청소년 복지의 대상은 아동 복지의 대상과 대부분 중복되어 있다. 또한 그 복지의 목적도 아동의 수혜권까지 명시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생존권 사상을 수반하고 있다. 이렇듯 아동복지와 별로 이념적 차이가 없는 청소년 복지를 독립된 분야로 정의해야 하는가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셋째는 아동 복지와 관련해서 청소년 복지의 수혜자들은 불명확한 실체라는 점이다. 복지 대상으로서의 아동은 아동 복지의

생존권 사상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보호법적 대상임에도 실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의 서비스와 사업을 명시하여 복지의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청소년 복지는 과연 어떤 계층이나 분야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또한 현재 암묵적으로 그 대상이라고 여겨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요보호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복지라면 아동복지와의 중복성을 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따른다.

이같은 청소년 복지를 개념화하는데 따르는 어려움과 고려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의 정의가 형성되어야 하는 데에는 사회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 발전에 따라 청소년들의 노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해지고 있다. 이제 청소년기가 장차 노동을 위한 유예기 또는 준비기가 아닌 하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기로 대두되고 있다. 지식산업의 발달과 창의적 문화의 발전 등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노동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야기되는 각종의 사회문제에 청소년이 주요한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여전히 청소년은 잠재력을 지닌 인간으로서 건전하고 바르게 육성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는 변화하는 청소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면 청소년 복지는 어떻게 개념화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청소년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책으로서 청소년 복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관점에서 청소년 복지는 포괄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의 청소년 문제와 비행에 대한 치료나 문제 해결의 소극적 전략에서 청소년 복지가 논의됐다면 이제는 예방적 차원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생활과 그를 둘러싼 가정 및 사회의 변화와 영향력을

꾸준히 예측하고 예견함으로써 청소년의 욕구가 정당하고 합리적
으로 이해되고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
이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사회의 가용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복지적 접근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가용 인력의 입장에서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의 소외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학적인 관심에서의 소외가 아닌 경제와 노동과 관련되
는 소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의 의미와 가치라는 노동
본래의 의미를 퇴색케 하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노동으로부
터 노동에서의 소외를 청소년이 벗어날 수 있는 방안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1) 노동의 소외로부터 예방되는 복지

흔히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한다. 이
말은 얼핏 규범적이고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사람을 강조하는 듯하
지만 모순을 지니고 있다. 인간과 노동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는 노동을 통해서 그
이기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기도 한다. 물론
노동이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를 획득하는 절대적인 방법임
에 틀림이 없고 휴식은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재창조의 준비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의 복지적 이상향은
노동을 위한 휴식이 아닌 휴식을 위한 노동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요인은
아니지만 노동을 인간의 절대 생존을 위한 도구로서의 의미만 부
각시켜 그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적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있어 노동은 수단적 가치가 아닌 삶의 가치로 받아들
여져야 한다. 노동을 통한 성취의 만족은 자기 존중감과 정체성

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여도 한다. 오늘날의 사회는 노동을 단지 화폐로 환산하여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 물론 삶에 있어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이미 공허한 반향이 되어 제자리에 돌아오고 있다.

어쩌면 현재의 우리에게 있어 삶의 문제에 대한 중심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주체적인 생명에서 객관적 사회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정보 통신의 혁명으로 인해 이제는 슈퍼맨(초능력 인간)이 더 이상 철학과 신학의 관념적 대상이 아니라 개개의 능력 내에서 가능해진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노동의 의미를 더듬어 가는 일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는 회의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삶이 인간을 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삶을 영위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되새긴다면 ‘노동’이 단순히 구조화된 자본주의의 생산 요소이거나 계급 없는 공산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견인차로서의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소외와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핵심적 요소로서의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노동을 통한 삶의 즐거움이 아닌 노동으로서의 삶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으로부터 소외의 예방이 청소년 복지의 주요한 틀이 되어야 한다. 즉, 이렇게 된다면 청소년 복지 서비스에 생산성을 부여함으로써 복지국가에서 가중되는 복지 비용의 부담으로부터 복지를 지키는 길의 한 방편이 될 것이다.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노동의 윤리적 문제이다. 노동은 자기중심적 활동이지만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작게는 가족으로부터 크게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흔히 노동의 윤리는 국가의 권위를 대중 수준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이는 노동의 자유의지와 선택성을 외면한 인식이다. 노동의 행위는 국가 존립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노동은 자기에 대한 절

제와 가치의 표현이며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노동에서의 윤리는 어떤 목적 가치를 갖느냐가 중요하다. 만일 나의 노동으로 인한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전이된다면 노동은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지 모르지만 동물과는 다른 인간의 정신적·정서적·관계적인 충족감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따온 사과는 노동 행위의 결과이다. 그런데 그의 노동이 결과적으로 인류의 행복을 앗아간 것처럼 노동은 단순한 나의 충족감을 채우기 위한 목적적 수단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찾기 위한 수단적 도구이자 목적이 되는 것이다. 결국 노동에서 자유적 구성 요소와 복지적 구성 요소를 포함한 이상적 노동 현장과 행위가 가능한지는 쉽게 결론 내릴 수 없지만 결코 인간 한 사람의 노동 행위가 다른 사람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혹은 그 영향을 측정할 수 없는 ‘진보된 현대 사회’에서 노동의 윤리성은 더욱 강조되어지며 그 윤리적 고민과 절제는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예방의 이념적이며 철학적 단계가 될 것이다.

이처럼 삶의 가치로서 중요성을 갖는 노동은 청소년기 발달과업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노동은 사회적 관계 수립과 삶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과업이다. 그런데 산업 사회에서 노동의 유예기간은 점차 길어지고 있다. 직업이 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의 습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은 삶의 중요 가치라는 의미에서 비껴나 생존과 사회 적응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강조되어 교육된다. 다시 말해 삶과 동일시되는 노동이 아닌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생존을 영위하는 수단으로서의 노동과 직업 기술만을 사회가 요구함으로써 노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보다는 노동의 필요성 측면만 교육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유예된 시기가 아니다. 노동의 가치와 필요는 생애 전반에 주요한 단계적 과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단순히 직업의 기술과 가치를 교육받아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사회로부터 부여받아서 안된다. 아동기와는 달리 그들의 삶을 노동과 함께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청소년 복지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들이 아직 사회적으로 계층화될 수 없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데 있다. 청소년들 스스로 삶을 시작하고 자립하는 목적적 수단으로서 그리고 자기의 삶을 채우는 방법으로서 노동의 의미가 되새겨져야 하며 이에 따른 부단한 노동의 윤리와 도덕의 함양은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2) 문제에서 욕구로

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사회문제는 주된 관심사이다.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 행동, 사회 해체, 아니면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에 따라 사회문제를 보는 이론이 분류된다. 구조기능론자들은 사회문제를 일탈이나 해체 등 병리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 하였고 이에 반해 갈등론자들은 사회문제를 사회구조 또는 제도의 불합리 또는 모순에서 찾으려 하였다. 즉, 사회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부적절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사회문제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문제는 치료적 의미를 담고 있어 갈등에 관련된 진정한 쟁점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론자는 그들이 주장하는 갈등의 몫 즉,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에 대해 실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갈등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론자 중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결과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사회 정책으로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범죄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행위이기 때문에 빈곤과는 다르게 여겨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위는 경제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그것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범죄 문제도 자본주의적 생산 체계라는 측면에서 설명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범죄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란이나 반항의 형태로 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적응의 한 형태로 보았다. 게다가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어떤 사회에 있어서든지 범죄는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것도 아니라고 간주하였다. 그들은 범죄가 사회주의에서는 사라진다고나 상당히 감소될 것이라고 명확히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범죄를 자본주의의 한 특징으로 간주하였다(남찬섭 역, 1994). 그렇지만 사회문제는 어떤 체제나 이데올로기의 산물이 아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사회문제의 형태를 보면 자본주의 사회와 유사하다. 그럼에도 사회문제를 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시각에서 시사를 받는 것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기본욕구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 그 속에서 인간 회복과 복지의 평등성을 회복하려는 의도는 비록 상이한 출발선상과 전개 과정을 갖고 있음에도 문제에서 욕구로의 관점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문제에서 욕구로의 전환은 두 가지 면에서 요청된다. 하나는 사회적 상황의 변화이다. 이미 사회가 폐쇄 체제에서 개방 체계로 옮겨가는 경향에 대한 이론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개방 체계에서의 정보는 공개되는 한편, 정보와 통신 그리고 첨단 기술의 발전에 의해 철저한 보안과 극도의 독점적인 상호관계의 모습을 보여 양면성을 나타낸다. 이제는 가두리양식장의 광어

처럼 동일한 여건과 조건 속에서 마치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생산된 양식 광어로 경쟁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미 양식장의 경계는 무너지고 새로운 힘센 고기들이 유입된다. 그 속에서 양식 광어의 기준으로 그렇지 못한 광어를 선별해 내는 작업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이처럼 무한 경쟁의 시대는 경쟁 상대가 이분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쟁 상대는 다른 가두리양식장의 광어가 아닌 끝없는 망망대해에서 뛰는 고기들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실체가 없어 보이는 이 경쟁 시대에 문제라는 시각으로 청소년을 본다면 문제의 해결보다는 그 원인조차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문제 해결이라는 수동적인 정책과 태도로 그들의 경쟁력과 창조력을 유발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청소년이 현실적인 권력구조 속에서 구체적인 역할이 불가능하다는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정책 대상으로서 이익집단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경제적으로 볼 때 노인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를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부분적으로 경제력을 갖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차지하는 가정에서의 위치와 교육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문화사회적으로도 힘을 가진다. 이에 반해 청소년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존재와 권리를 확보할 만한 어떤 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단지 청소년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 중의 하나라는 점 외에 그들이 사회적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복지 대상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알타미라 동굴에서 발견된 “요새 젊은이들은…”으로 시작되는 문구가 마치 청소년문제의 전부를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른들에게 청소년문

제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며, 적당한 관심과 외면 그리고 성인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과 이용 속에서 사회 발전에 별 지장을 주지 않고 진행되었다. 어쩌면 청소년문제는 성인의 청소년에 대한 그릇된 애정과 관심의 표현 수단으로 전락되고 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찾기는 몹시 힘들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논의 이전에 오늘의 청소년의 욕구와 갈등에 대해 사회적 관점에서 인식해 본 일이 있는가라는 의문은 제기되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건강하게 자라날 환경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변화하는 시대 속에 청소년만이 수천년 내려오는 인식의 틀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문제에서 욕구로의 전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이 사회로부터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소년문제의 원인을 청소년의 정신적이며 정서적 장애와 갈등 그리고 가정 및 주변 환경과의 불일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진정한 사회적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질병으로 보지 않고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통제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를 인식하고 그 대응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른 사회집단과 비교하여 취업, 주택, 수입 및 결정 과정의 참여 등 여러 면에서 다중적인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보는 Drury와 Jamrozik의 시각(김형식, 1993에서 재인용)에 대한 동조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의 이해는 청소년복지가 청소년문제 해결에서 청소년의 욕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 큰 함의를 준다.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환경과 조건 아래서 경기를 시작하는 것은 ‘승자에게 기쁨을 패자에게는 위로를’ 이라는 이상적인 공동체 의식을 수공하는 전

제조조건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 육구의 중요성은 청소년이 갖는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의 해소와 청소년이 일으키는 사회문제의 명확한 이유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데서 그 의미를 가진다.

2.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개념

청소년 복지간접자본은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되지 않은 용어이다. 청소년 복지간접자본은 사회간접자본의 용어에서 차용한 개념으로서, 사회간접자본의 개념 정의는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개념 설정에 시사를 준다.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에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은 직접 생산력이 있는 생산 자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간접적으로 생산자본의 생산력을 높이는 기능을 갖는 자본으로 보는 시각이며,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본 중에 기업이 직접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재화의 특성으로 보아 인간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재화로서 공동 소비성, 비배제성과 같은 재화의 특성 때문에 시장기구에 의해서 충분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재화의 특성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론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이다.

셋째는 단순히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할 때 공공 부문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을 사회간접자본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허쉬만은 위의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생산활동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 서비스로서 공공 서비스, 교통, 통신, 전력, 수도, 관개 및 배수 등과 관련된 재화 및 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간접자본을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정의에서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 서비스라든가 국민경제의 필요성에 따라서 라는 규정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포괄범위를 설정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을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개념은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공공 부문이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간접자본으로 정의하는 것이고, 광의의 개념은 협의에 더해서 기능적 관점에서 보아 협의의 개념에 포함된 시설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민간 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다(양지청, 1994).

이같은 맥락에서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은 사회간접자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 부문이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협의의 개념을 차용하여 사회복지의 정책적 범주 내에서 개념화되는 용어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에 있어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은 세 가지 함의를 갖는다.

첫째는 빈민 또는 불이익이나 낙오된 소수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접근 가능한 서비스로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사회사업의 보편주의적 물결의 수용을 뜻한다. 둘째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기업 또는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 아닌 자본주의 체제 즉, 시장경제 체제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자리잡음이 요청된다는 판단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는 복지 선진국이 복지 비용의 막대한 증가로 인해 외형적 복지 수준은 제고되고 있지만 실제 복지의 효율성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에서 시사점을 얻는다.

이러한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 시기상조의 입장을 취하는 경제 또는 사회복지학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절대적인 빈곤 계층에 대한 제도적인 복지 정책이 충분히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제적 불황을 과도한 복지 지출에서 찾으려는 복지병에 대한 국민 반응에 따른 복지 지출 억제책에 동조하는 듯한 느낌도 지울 수 없을 것이며 한편, 경제성장론자들은 우리가 비록 선진국 문턱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경제성장의 지속을 통한 선진국의 진입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탄탄히 이행하기 위해 복지 지출의 유예를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복지간접자본이 복지의 경제적 개념과 이념을 차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복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에 따른 경제적 논리는 더욱 강조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경제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관점을 수용한 복지의 범위와 개념을 규정하고자 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발전과의 관계는 경제발전이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복지발전도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경제발전이 사회복지발전을 설명하지 못한다(김태성, 1990). 즉, 사회복지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 틀이 새롭게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물론 복지간접자본의 개념이 그러한 분석의 방법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나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복지의 한계를 상정한다면 복지간접자본의 개념은 그러한 상황에서 복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적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이러한 복지간접자본이 모든 사회복지분야에 침투되거나 일반화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며 다각도의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분야에서 복지간접자본은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계층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³⁾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생산성이 다른 어느 대상보다도 높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청소년은 육성 대상이며 그 책임은 국가와 사회가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차적인 개념 정립이 가

능하고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은 사회간접자본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 또한 포괄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은 모든 청소년을 위한 복지적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전제로 한 전체 활동과 시설인 동시에 청소년들의 정서 및 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유무형의 프로그램 모두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성장과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직·미진학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처방 *selective intervention*과 일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원되는 보편적 처방 *universal intervention*이 병행되어야 한다(김정명 외, 1989)는 것이다. 만일 무직미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선택적 처방만이 그 대상이 된다면 청소년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 모든 청소년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과 기회균등의 이념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토대로 선택적으로 특수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더욱 효과 있는 복지 체계를 도출하고 또한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
- 3) 청소년이 계층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반대가 있을 수 있다. C. Boland 와 A. Jamrozik 는 청소년의 사회계층적 분류를 지역 및 주거 형태, 가족관계, 교육, 노동시장, 문화 정치활동 등 5가지 형태로 상위 및 중류층과 노동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김형식, 1993 : 286에서 재인용). 그러나 청소년이 자발적인 선택과 능력에 의해 계층화되지 않고 그들의 환경 또는 가정적 빈부에 따라 계층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계층화는 어른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가변적이고 시의적인 면이 강하다. 또한 사회정의 또는 자본주의 윤리적인 관점에서라도 그같은 시각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의 계층화는 실제 현상이라도 엄격히 구분되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은 청소년의 요구를 토대로 복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공공의 인적, 물적, 시설 자원 및 재정과 제도 등을 말한다. 만일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이 청소년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생산적 자본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며 한편, 청소년 요구만 전제로 한다면 공공복지정책으로서의 사회적 정의와 분배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생산적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은 청소년의 성별, 교육 정도, 경제적 능력과 그들의 사회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이 기존의 청소년 시설과 청소년복지서비스와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자원과 시설, 그리고 재정과 인적 물적 자원과 뚜렷이 구분된다고는 볼 수 없고 실제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유형으로 따로 존재하는 자원 또는 자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은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공공재나 경제적 성장을 위한 기초적 자본이 아닌 각종의 청소년자원이 보편성을 갖고 생산적인 복지자원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이 범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하위체계를 지정하여 명명되어 질 수 없다. 다만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성격을 갖는 각종의 자원이 복지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청소년 자원의 활용과 함께 새로운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개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Ⅲ. 조사결과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내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은 청소년들의 욕구에 기초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복지간접자본개발에 선행하여 청소년들의 복지 환경에 대한 의식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들이 느끼는 가정, 사회, 국가의 복지 수준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영역에 따른 복지 수준 및 내용을 제시하고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잘 모르겠다’(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선택하게 하였다.

그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청소년 복지의 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복지 혜택 유무, 복지 대상 청소년의 범위, 가장 중요한 청소년 복지 정책,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복지지원책,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 중 가장 우선적인 것, 청소년 복지시설의 문제점, 가장 잘못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 관련 시설의 이용 실태도 살펴보았는데 그 대상은 집근처의 근린공원, 청소년회관, 구민회관, 사회복지회관, 공립미술관, 공공도서관, 학교운동장(개방시간 내) 등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시설과 활동에 대한 욕구분석을 통해

지원해야 할 프로그램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중 가장 활성화되어야 하는 장소, 흥미를 느껴 참여하고 싶은 활동,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지원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제시한 후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면 적당한 것과 최소한의 비용이나 할인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2) 조사방법

청소년복지간접자본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욕구와 필요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1995년 9월 15일에서 9월 23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설문대상은 고등학생 200명과 직업전문학교학생(직업훈련원생) 200명으로 전체 400명이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고등학교 4개교와 직업전문학교 2개교에서 학교 수업시간과 교양교육시간을 이용하여 담당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설문이 실시되었다.

회수된 설문 중에서 불충분하거나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설문은 377부였다. 이중 남자는 220명으로 58.4%이며, 여자는 157명으로 41.6%이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적은 비율인 것은 직업전문학교에서의 여자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소속별로는 고등학생이 202명으로 53.6%이며, 직업전문학교학생이 175명으로 46.4%이다. 또한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 편에 속하는 청소년이 27명(7.2%)이며 보통이라고 한 경우는 315명(83.5%), 어려운 편이라고 한 청소년이 35명(9.3%)이다.

〈표 1〉 설문대상의 사회인구적 변인

	남 자		여 자		전 체	
소속별						
고등학생	101	50.0%	101	50.0%	202	53.6%
직업전문학생	119	68.0%	56	32.0%	175	46.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9	70.4%	8	29.6%	27	7.2%
보통임	171	54.3%	144	45.7%	315	83.5%
어려운편	30	85.7%	5	14.3%	35	9.3%
전체	220	58.4%	157	41.6%	377	100.0%

3) 분석방법

설문조사가 끝난 후 모든 설문내용은 부호화 과정을 통해 자료를 편정하였고, SPSS PC +(ver.3.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청소년의 가정, 사회, 국가의 복지수준에 대해서는 하위변인에 따른 t-검증과 one-way ANOVA를 통한 평균차검증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각 영역의 문항에 대해서는 하위변인별 빈도를 산출하였다. 하위변인으로 이용된 것은 성별(남자, 여자), 소속별(고등학생, 직업전문학교학생), 경제수준별(잘사는 편, 보통, 어려운 편)변인이다.

2. 조사결과

1) 가정, 사회, 국가의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

청소년들이 가정, 사회, 국가의 복지수준 또는 복지지원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 영역에 몇 가지 문항을 제시한 후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잘 모르겠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반응을 구한 후 각 집단별 평균을 산출하였다.

먼저 각 영역별 문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가정, 사회, 국가 복지수준 평가 문항

영역	문항	평균(표준편차)
가정	○ 나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정에 살고 있지 않다.	3.46(.99)
	○ 부모님은 나를 인정해 준다.	3.72(.86)
	○ 고민이나 갈등을 형제와 잘 의논한다.	2.76(1.19)
	○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에 적극 후원해 준다.	3.54(1.07)
	○ 부모님과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	3.16(1.06)
	○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못해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이 더 좋다.	3.98(1.05)
	○ 부모님간의 사이가 좋다.	3.80(.97)
	○ 나의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51(.64)
	○ 가정은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다.	3.82(.99)
	○ 나는 나의 가정을 사랑한다.	4.24(.78)
	전체	3.70
사회	○ 경제적 성장보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평등하게 사는 사회가 더 좋다.	3.92(1.07)
	○ 다른 사람들을 믿을만 하다.	2.90(.90)
	○ 자기만 열심히 일한다면 성공한다.	3.36(1.16)
	○ 아직도 인정이 마르지 않았다.	3.54(.91)
	○ 우리사회의 갈등은 그리 큰 편이 아니다.	2.47(.96)
	○ 나는 우리사회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2.96(1.01)
	○ 우리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밥을 굶지 않는다.	3.73(1.03)
	전체	3.26
국가	○ 우리나라는 어느정도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2.45(.86)
	○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26(.85)
	○ 정부의 정책은 믿을만 하다.	2.13(.83)
	○ 국가는 복지혜택의 기회를 고르게 주고 있는 편이다.	2.45(.82)
	○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집행된다.	2.38(1.03)
	○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이다.	2.88(.98)
	전체	2.43

가정 영역의 경우 전체적인 평균이 3.70이며 거의 모든 문항에서 평균이 3.00보다 높아서 가정에 대한 복지수준 평가가 보통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사회영역에 대한 평균은 3.26으로 중앙값인 3.26보다 높아서 보통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지만 하위문항에서 3.00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도 반정도에 이른다. 국가영역에서 보면 전체 평균도 2.43으로 3.00보다 낮으며 각 문항별 점수도 낮아서 국가영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는 낮은 편이다.

가정영역의 복지 수준의 전체 평균에 대한 성별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가정영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성별차이

집 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남 자	218	3.66	.56	1.07	.286
여 자	157	3.72	.47		
전 체	375	3.69	.52		

가정영역의 복지수준에 대하여 남자의 평균은 3.66, 여자의 평균은 3.72으로서 두 집단간 평균차 검증에 따른 t값은 1.07로서 $p < .05$ 수준에서 두 집단간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별로 가정영역의 복지 수준에 대한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가정영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소속별 차이

집 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고등학생	202	3.72	.51	-1.44	.152
직업전문학생	173	3.64	.53		
전체	375	3.69	.52		

고등학생의 경우 평균이 3.72, 직업전문학생의 경우 평균이 3.64로서 고등학생이 가정의 복지 수준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지만 두 집단간 평균차 검증에 따른 t 값은 -1.44 이며 이 값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므로 고등학생과 직업전문학생의 경우 가정영역의 복지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가정영역에 대한 경제수준별 복지수준에 대한 평균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가정영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경제수준별 차이

○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사례수
잘	사는 편	3.91	.59	27
보	통	3.70	.51	314
어	려운 편	3.40	.50	34
전	체	3.69	.51	375

○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p
집 단 간	2	4.22	2.11	7.87	.000
집 단 내	372	99.70	.26		
전 체	374	103.92			

○ 사후검증결과(scheffé)

	잘 사는 편	보 통
잘 사는 편(3.91)		
보 통(3.70)	0.21	
어려운 편(3.40)	0.51*	.30*

* $p < .05$

경제수준이 잘산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평균은 3.91,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의 평균은 3.70, 어려운 편이라고 한 집단은 3.40으로 경제수준이 높을 수록 가정의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가 높

다. 이러한 각 집단의 평균값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F=7.87$ 로서 $p<.05$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다. 또한 사후검증결과를 보면 잘사는 편과 어려운 편 간의 평균차이와 경제수준이 보통인 경우와 어려운 편인 경우의 평균 차이가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사회영역에 대한 성별 평균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사회영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성별차이

집 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남 자	219	3.35	.53	-3.92	.000
여 자	155	3.15	.44		
전 체	374	3.27	.50		

사회영역의 복지수준에 대하여 남자의 평균은 3.35이고, 여자는 3.15이며, 전체 평균은 3.27이다. 각 집단의 평균값이 중간점인 3.00을 넘어 사회영역의 복지수준 또한 일정한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집단간의 평균차 검증에 따른 t값은 -3.92로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서 여자에 비해 남자가 사회적 영역의 복지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남자보다 여자가 유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영역별 복지수준에 대한 소속별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사회영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소속별 차이

집 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고등학생	201	3.24	.53	1.19	.235
직업전문학생	173	3.30	.47		
전 체	374	3.27	.50		

고등학생의 경우 평균이 3.24, 직업전문학생의 경우 3.30으로 두 집단간 평균차 검증에 따른 t 값은 1.19이며 이 값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영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소속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회영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경제수준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8〉 사회영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경제수준별 차이

○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사례수
잘 사 는 편	3.24	.59	27
보 통	3.28	.49	312
어 려 운 편	3.24	.56	35
전 체	3.27	.50	374

○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p
집 단 간	2	.06	.03	.13	.87
집 단 내	371	96.31	.25		
전 체	373	96.37			

○ 사후검증결과(scheffé)

	잘 사 는 편	보 통
잘 사 는 편 (3.24)		
보 통 (3.28)	-.21	
어려운 편 (3.24)	.00	.04

* $p < .05$

경제수준이 ‘잘사는 편’이라고 밝힌 청소년들의 평균은 3.24, ‘보통’이라고 밝힌 청소년은 3.28, ‘어려운 편’이라고 밝힌 청소년

은 3.24로서 집단간 차이가 거의 없으며 이들 세 집단간 평균에 대한 일원변량분석결과 F값은 .13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다. 또한 사후검증에서도 각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경제수준에 따른 사회영역의 복지수준인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영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차이 중 먼저 성별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국가영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성별차이

집 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남 자	219	2.43	.63	-.02	.986
여 자	157	2.42	.59		
전 체	376	2.42	.61		

국가영역의 복지수준에 대하여 전체의 평균은 2.42이며, 남자의 평균은 2.43, 여자의 평균은 2.42로 모두 중간값인 3.00보다 낮아서 국가영역의 복지수준은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와 여자 두 집단간의 평균차이는 거의 없으며, 평균차 검증에 따른 t값이 -.02로서 $p < .05$ 수준에 유의미하지 않다.

또한 소속별 국가영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국가영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소속별 차이

집 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고등학생	202	2.33	.61	3.41	.001
직업전문학생	174	2.54	.59		
전 체	376	2.42	.61		

고등학생의 평균은 2.33, 직업전문학생의 평균은 2.54로서 고등학생이 직업전문학교학생에 비해 국가영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이 차이는 t 값이 3.41로서 $p<.05$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 결과는 응답한 직업전문학교학생이 공공복지적 차원에서의 훈련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영역에 대한 복지수준의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국가영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경제수준별 차이

○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

집 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잘 사는 편	2.36	.75	26
보 통	2.44	.60	315
어 려운 편	2.35	.58	35
전 체	2.42	.61	376

○ 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p
집 단 간	2	.34	.17	.45	.63
집 단 내	373	141.48	.37		
전 체	375	141.82			

○ 사후검증결과(scheffé)

	잘 사는 편	보 통
잘 사는 편(3.24)		
보 통(3.28)	-.08	
어려운 편(3.24)	.01	.09

* $p<.05$

경제수준이 ‘잘사는 편’이라고 밝힌 청소년의 평균은 2.36, ‘보통’이라고 밝힌 경우의 평균은 2.44, ‘어려운 편’이라고 한 청소년

년의 평균은 2.35로서 ‘보통’이라고 한 청소년들이 국가영역의 복지수준을 다른집단에 비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집단간에 일원변량분석을 통한 F값은 .45로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다. 또한 각 집단간의 사후검증의 결과도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국가영역에 대한 경제수준별 복지수준인식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우리나라 청소년복지 실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복지혜택을 실제로 얼마나 누리고 있으며, 자신이 복지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조사대상자 중 51.2%가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으며 48.8%는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있 다	없 다	사례수
성별			
남자	57.7%	42.3%	220
여자	42.0%	58.0%	157
소속별			
고등학생	32.7%	67.3%	202
직업전문학생	72.6%	27.4%	17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48.1%	51.9%	27
보통임	50.8%	49.2%	315
어려운편	57.1%	42.9%	35
전체	51.2%	48.8%	377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 비율이 57.7%이며, '없다'고 한 비율은 42.3%로 복지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 비율이 더 높는데 비해 여자는 복지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 비율(42.0%)보다 '없다'고 한 비율(58.0%)이 더 높아서 차이를 보인다.

소속별로는 고등학생 중 복지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 비율은 32.7% 밖에 안되는데 비해 직업전문학교학생 중에는 복지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 비율이 72.6%로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소년들이 복지혜택을 받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경제수준이 여유가 있는 청소년은 48.1%, 보통인 청소년은 50.8%, 어려운 편인 청소년은 57.1%가 복지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복지대상으로서 청소년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전체 청소년 모두를 포괄해서 생각해야 하는가? 87.2%가 '모든 청소년'이 복지의 대상이라고 하며, 8.2%는 '장애나 불우환경 청소년', 1.3%는 '문제 또는 비행청소년'이 복지의 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단지 0.5%만이 누구도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어떤 특별한 환경이나 위치,상황을 고려하여 복지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며, 모든 청소년들에게 균등하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요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이나 소속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다만 경제수준별로 볼 때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수준이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장애나 불우환경 청소년'만 복지혜택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비율이 17.1%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 복지 대상으로서 청소년의 영역은?

	누구도 아님	장애나 불우환경 청소년	문제 비행 청소년	재수생 실업 청소년	모든 청소년	기타	사례수
성별							
남자	.9%	9.1%	1.8%	1.4%	85.9%	.9%	220
여자	.0%	7.1%	.6%	1.9%	89.1%	1.3%	156
소속별							
고등학생	.0%	9.5%	.5%	1.0%	87.6%	1.5%	201
직업전문학생	1.1%	6.9%	2.3%	2.3%	86.9%	.6%	17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0%	7.4%	.0%	.0%	92.6%	.0%	27
보통임	.3%	7.3%	1.6%	1.9%	87.6%	1.3%	314
어려운편	2.9%	17.1%	.0%	.0%	80.0%	.0%	35
전체	.5%	8.2%	1.3%	1.6%	87.2%	1.1%	376

“당신이 생각하기에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동공간 확충’에 61.4%가 응답하여 청소년을 위한 공간확보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기회확대’(21.0%), ‘문제 및 비행청소년의 선도’(6.4%), ‘빈곤한 청소년을 위한 물질적 혜택’(4.0%) 순으로 청소년을 위해 중요한 복지정책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앞에서 본 ‘복지대상으로서 청소년의 영역’에 대해 많은 비율이 모든 청소년으로 그 대상을 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복지정책 내용 또한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동공간 확충’에 63.5%,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에 17.4%,

〈표 14〉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동공간 확충	청소년의 유해환경 제거	문제 및 비행 청소년 선도	청소년 직업교육 취업기회 확대	빈곤한 청소년을 위한 물질혜택	불행한 청소년을 위한 정신적 도움	기타	사례수
성별								
남자	63.5%	3.2%	5.5%	17.4%	4.1%	5.0%	1.4%	219
여자	58.6%	1.9%	7.6%	26.1%	3.8%	1.9%	.0%	157
소속별								
고등학생	69.2%	2.5%	6.0%	13.9%	5.0%	2.5%	1.0%	201
직업전문학생	52.6%	2.9%	6.9%	29.1%	2.9%	5.1%	.6%	175
경제수준별								
잘사는 편	63.0%	7.4%	14.8%	7.4%	.0%	3.7%	3.7%	27
보통임	62.1%	1.9%	5.7%	21.7%	4.1%	3.8%	.6%	314
어려운 편	54.3%	5.7%	5.7%	25.7%	5.7%	2.9%	.0%	35
전체	61.4%	2.7%	6.4%	21.0%	4.0%	3.7%	.8%	376

‘문제 및 비행청소년의 선도’에 5.5%, ‘불행한 청소년을 위한 정신적 도움’에 5.0%가 청소년을 위해 중요한 복지정책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 58.6%는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동공간 확충’이 청소년복지 정책 중 중요한 것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기회의 확대’(26.1%), ‘문제 및 비행청소년 선도’(7.6%), ‘빈곤한 청소년을 위한 물질적 혜택’(3.8%)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별로는 고등학생이 직업전문학교학생 보다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동공간 확충’에 대한 비율이 더 높고,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에는 고등학생 보다 직업전문학교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다. 경제 수준별로는 ‘잘사는 편’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문제 및 비행 청소년의 선도’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보통’인 경우와 ‘어려운 편’에 속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에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과 달리 실제로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위한 복지자원 중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55.2%는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동공간 확충’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복지영역이며, 15.6%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기회의 확대’, 8.2%는 ‘청소년 유해환경제거’, 6.9%는 ‘빈곤한 청소년을 위한 물질적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 소속별, 경제수준별로도 비슷하게 나타나며, ‘복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과 일치한다.

〈표 15〉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청소년복지 지원은?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동공간 확충	청소년의 유해환경 제거	문제 및 비행 청소년 선도	청소년 직업교육 취업기회 확대	빈곤한 청소년을 위한 물질혜택	불행한 청소년을 위한 정신적 도움	기타	사례수
성별								
남자	60.5%	8.2%	6.8%	12.3%	6.4%	4.5%	1.4%	220
여자	47.8%	8.3%	12.7%	20.4%	7.6%	3.2%	.0%	157
소속별								
고등학생	62.4%	7.4%	8.9%	10.4%	6.9%	2.5%	1.5%	202
직업전문학생	46.9%	9.1%	9.7%	21.7%	6.9%	5.7%	.0%	17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55.6%	11.1%	22.2%	7.4%	.0%	3.7%	.0%	27
보통임	55.9%	8.3%	8.6%	15.2%	7.3%	4.1%	.6%	315
어려운편	48.6%	5.7%	5.7%	25.7%	8.6%	2.9%	2.9%	35
전체	55.2%	8.2%	9.3%	15.6%	6.9%	4.0%	.8%	377

‘모든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혜택 중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52.7%가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충’이라고 하며, 29.8%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제공’이라고 응답하였다. 9.0%는 ‘청소년 운동시설의 확충’이라고 하며, 3.5%는 ‘청소년을 위한 컴퓨터 정보 통신망의 확대’, 2.7%가 ‘공공도서관의 건립’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

는 지원 중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16〉 모든 청소년에게 돌아갈 혜택 중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

	청소년 운동시설의 확충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충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컴퓨터 정보통신망의 확대	청소년 회관의 증설	공공 도서관의 건립	기타	사례수
성별								
남자	12.7%	51.8%	26.4%	4.1%	1.4%	1.8%	1.8%	220
여자	3.8%	53.8%	34.6%	2.6%	1.3%	3.8%	.0%	156
소속별								
고등학생	7.4%	55.9%	29.7%	2.5%	1.0%	2.5%	1.0%	202
직업전문학생	10.9%	48.9%	29.9%	4.6%	1.7%	2.9%	1.1%	17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7%	63.0%	25.9%	3.7%	.0%	3.7%	.0%	27
보통임	8.6%	53.2%	29.6%	3.5%	1.6%	2.5%	1.0%	314
어려운편	17.1%	40.0%	34.3%	2.9%	.0%	2.9%	2.9%	35
전체	9.0%	52.7%	29.8%	3.5%	1.3%	2.7%	1.1%	376

성별로 보면 ‘청소년 운동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는 여자보다 남자의 비율이 더 높고,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의 제공’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더 높다. 소속별로는 ‘청소년 문화공간확충’에 대해 ‘고등학생’들의 요구가 더 높으며, ‘청소년 운동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는 ‘직업전문학교학생’의 욕구가 더 높다.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 청소년이 다른 집단에 비해 ‘청소년 운동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지원요구가 더 높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일까? 전체의 42.8%는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며, 40.7%는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여 시설부족과 거리감이 문제로 제시된다. 8.2%는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2.7%는 ‘공간이 너무 좁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5.1%는 기타의 생각으로 ‘홍보부족으로 잘 모르

졌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단지 0.5%에 그친다.

〈표 17〉 청소년을 위한 복지 시설의 문제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하다	시설이 심한 낙후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공간이 너무 좁다	별문제 없다	기타	사례수
성별							
남자	46.6%	9.6%	35.6%	2.7%	.5%	5.0%	219
여자	37.6%	6.4%	47.8%	2.5%	.6%	5.1%	157
소속별							
고등학생	44.8%	9.5%	37.8%	1.5%	.0%	6.5%	201
직업전문학생	40.6%	6.9%	44.0%	4.0%	1.1%	3.4%	17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7.0%	22.2%	37.0%	.0%	.0%	3.7%	27
보통임	42.0%	7.6%	41.4%	3.2%	.6%	5.1%	314
어려운편	54.3%	2.9%	37.1%	.0%	.0%	5.7%	35
전체	42.8%	8.2%	40.7%	2.7%	.5%	5.1%	376

성별로 볼 때 남자의 46.6%가 ‘기본적인 시설 부족’에 반응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데 비해, 여자의 47.8%는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제시한다. 소속별로는 고등학생은 ‘기본적으로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4.8%로 가장 높은 데 비해, 직업전문학교학생은 44.0%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여 차이를 보인다.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경우의 청소년은 ‘기본시설이 부족하다는 것’과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에 37.0%가 응답하였으며,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에 22.2%가 응답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경제수준이 ‘보통’인 경우와 ‘어려운’ 경우 모두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청소년복지의 가장 큰 문제라고 들고 있지만 ‘어려운’ 경우의 청소년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체 청소년의 34.8%가 ‘청소년 건전활동 육성사업’, 22.5%가 ‘청소년상담 및 선도사업’, 17.6%가 ‘실업청소년을 위한 취업기회제공’, 14.7%가 ‘장애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10.4%가 ‘불우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하여 특수영역의 청소년정책보다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다.

〈표 18〉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정책 중 가장 잘못되고 있는 것

	불우청소년 지원사업	실업청소년 취업기회 제공	장애청소년 복지사업	청소년상담 및 선도사업	청소년 건전활동 육성사업	사례수
성별						
남자	10.5%	11.4%	11.4%	24.2%	42.5%	219
여자	10.3%	26.5%	19.4%	20.0%	23.9%	155
소속별						
고등학생	11.0%	18.5%	11.0%	24.0%	35.5%	200
직업전문학생	9.8%	16.7%	19.0%	20.7%	33.9%	17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0%	14.8%	11.1%	22.2%	51.9%	27
보통임	10.9%	17.9%	15.1%	22.8%	33.3%	312
어려운편	14.3%	17.1%	14.3%	20.0%	34.3%	35
전체	10.4%	17.6%	14.7%	22.5%	34.8%	374

성별로 보면, 남자의 42.5%가 ‘청소년 건전활동 육성사업’이, 24.2%는 ‘청소년상담 및 선도사업’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실업청소년을 위한 취업기회제공’에 26.5%, ‘청소년 건전활동육성사업’에 23.9%가 응답하여 차이를 보인다.

소속별로 보면 고등학생은 ‘청소년 건전활동 육성사업’(35.5%), ‘청소년상담 및 선도사업’(24.0%), ‘실업청소년을 위한 취업기회제공’(18.5%) 순으로 청소년정책 중 가장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직업전문학교학생들은 ‘청소년 건전활동육성’(33.9%), ‘청소년상담 및 선도사업’(20.7%), ‘장애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19.0%)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 집안의 청소년은 ‘청소년 건전활동 육성’(51.9%)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며,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불우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14.3%)이 청소년정책 중 잘못된 것이라고 밝힌 비율이 높다.

3) 청소년관련시설 이용실태

청소년들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시설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청소년 복지시설의 지원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근린공원’, ‘청소년회관’, ‘구민회관’, ‘공립미술관’, ‘공공도서관’, ‘개방식 학교운동장’의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집근처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 비율이 39.8%이며, 일주일에 1~2회 이용한다고 한 경우는 19.0%, 한 달에 1~2회 정도 이용한다고 한 청소년은 16.3%, 한 학기당 1~2회 이용한다고 한 청소년은 9.6%이며, 일년에 1~2회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5.2%로서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다.

〈표 19〉 청소년관련시설 이용실태

시설명	이용안함	1주일에 1~2회	한달에 1~2회	한학기당 1~2회	1년에 1~2회	사폐수
집근처근린공원	39.8%	19.0%	16.3%	9.6%	15.2%	374
청소년회관	79.5%	2.2%	3.5%	4.1%	10.8%	370
구민회관	76.4%	2.4%	3.3%	2.4%	15.5%	368
사회복지회관	88.6%	1.1%	2.7%	1.4%	6.2%	369
공립미술관	71.4%	1.9%	1.6%	5.4%	19.7%	370
공공도서관	26.1%	17.6%	19.5%	20.0%	16.8%	375
학교운동장	30.4%	38.7%	15.9%	6.5%	8.6%	372

‘청소년회관’의 경우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79.5%나 되며, 일주일에 1~2회 이용한 청소년은 2.2%, 한달에 1~2회정도 이용한다는 청소년은 3.5%, 한학기당 1~2회 정도 이용한다는 청소년은 4.1%이며, 1년에 1~2회 이용한다는 청소년은 10.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아주 낮다. 다른 시설에 비해 청소년 전용으로 설립한 청소년회관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청소년들이 매우 제한적으로 청소년회관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민회관’의 경우 76.4%가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하며 2.4%는 일주일에 1~2회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3.3%의 청소년은 한달에 1~2회 정도 이용하며, 2.4%는 한학기당 1~2회정도 이용하고, 일년에 1~2회 정도 이용하는 청소년은 15.5%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회관’의 이용률을 보면 88.6%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하며 단지 1.1%만이 일주일에 1~2회정도만이 이용하고, 2.7%는 한달에 1~2회, 1.4%는 한학기당 1~2회정도, 그리고 6.2%는 일년에 1~2회 정도 이용한다고 하여 제시된 다른 시설에 비해 가장 이용도가 낮았다.

‘공립미술관’은 1.9%가 일주일에 1~2회정도 이용한다고 하며

1.6%는 한달에 1~2회, 5.4%는 한학기당 1~2회, 그리고 19.7%는 일년에 1~2회 이용한다고 하며,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 청소년 71.4%로서 이용정도가 그리 높지 않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 청소년은 단지 26.1%이며, 일주일에 1~2회 이용한다고 한 청소년은 17.6%, 한달에 1~2회 이용한다고 한 청소년은 19.5%이며, 한학기당 1~2회정도 이용한다고 한 청소년은 20.0%이고, 일년에 1~2회 이용한다고 밝힌 청소년은 16.8%로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개방시 학교운동장’에 대한 이용율을 보면, 38.7%가 일주일에 1~2회 이용한다고 하며 15.9%는 한달에 1~2회 이용한다고 하여 이용률이 높다. 한학기당 1~2회정도 이용하는 비율은 6.5%이고 일년에 1~2회 이용한다고 한 비율은 8.6%이며,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 비율은 30.4%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시된 시설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학교운동장’, ‘집근처 근린공원’과 같은 열린 공간이 위주이며, 그 다음은 ‘공공도서관’으로 나타나 실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 등의 이용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4) 청소년들의 시설과 활동에 대한 욕구

먼저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활성화되어야 하는 장소’를 두가지 선택하게 하였다. 사례수의 200%를 전체 비율로 하여 살펴본 결과를 보면, ‘공공도서관’(51.5%), ‘청소년회관’(50.7), ‘집근처의 근린공원’(38.7%), ‘사회복지회관’(24.0%), ‘공립미술관’(16.0%), ‘학교운동장’(13.

6%), ‘구민회관’(5.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해 설립한 청소년회관의 경우 실제 이용률은 저조하지만, 활성화되어야 하는 장소로 응답 청소년의 과반수가 의견을 나타내 청소년회관의 기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20〉 청소년을 위해 활성화되어야 하는 장소(2개 선택)

	집근처의 근린공원	청소년 회관	구민회관	사회복지 회관	공립 미술관	공공 도서관	학교 운동장	사례수
성별								
남자	41.3%	52.8%	5.5%	21.1%	12.4%	46.8%	19.7%	218
여자	35.0%	47.8%	5.1%	28.0%	21.0%	58.0%	5.1%	157
소속별								
고등학생	42.5%	53.5%	2.0%	23.5%	16.0%	53.5%	8.5%	200
직업전문학생	34.3%	47.4%	9.1%	24.6%	16.0%	49.1%	19.4%	17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8.5%	50.0%	.0%	23.1%	11.5%	61.5%	15.4%	26
보통임	39.2%	48.4%	5.7%	24.5%	16.2%	51.9%	13.7%	314
어려운편	34.3%	71.4%	5.7%	20.0%	17.1%	40.0%	11.4%	35
전체	38.7%	50.7%	5.3%	24.0%	16.0%	51.5%	13.6%	375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52.8%가 청소년회관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46.8%는 공공도서관, 41.3%는 집근처의 근린공원, 21.1%는 사회복지회관이 청소년을 위해 활성화되어야 하는 장소로 들고 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58.0%가 공공도서관을 활성화되어야 하는 장소로 제시하며, 47.8%는 청소년회관, 35.0%는 집근처의 근린공원, 28.0%는 사회복지회관, 21.0%는 공립미술관을 청소년을 위해 활성화되어야 하는 장소로 제시하여 차이를 보인다.

소속별로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공공도서관과 청소년회관을 각각 53.5%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위해 활성화되어야 하는 장소로 제시하며, 42.5%는 집근처의 근린공원, 23.5%는 사회복지회관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직업전문학교학생은 49.1

%가 공공도서관이 청소년을 위해 활성화되어야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며, 47.4%는 청소년회관, 34.3%는 집근처의 근린공원, 그리고 24.6%가 사회복지회관이 청소년을 위해 활성화되어야 하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경제수준별로 보면, 경제수준이 높을 수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욕구가 높고, 경제수준이 어려울수록 청소년 회관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난다.

청소년들이 가장 흥미를 느껴서 실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것을 3개씩 선택하게 하여 사례수의 300%를 전체 비율로 계산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75.3%가 ‘여행’, 45.6%가 ‘스포츠 감상 및 활동’, 45.1%가 ‘시간제 일’에 흥미가 있어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으며, 28.1%는 ‘음악감상 및 제작’, 18.8%는 ‘사진’, 18.6% ‘춤’, 17.8%는 ‘컴퓨터 게임’에 흥미를 느껴 참여하고 싶다고 나타났다.

〈표 21〉 흥미를 느껴 참여하고 싶은 것(3개 선택)

	사진	시간 제일	여행	스포츠 감상 및 활동	그림 감상 및 제작	음악 감상 및 제작	낚시	독서	춤	컴퓨터 게임	TV 시청	작문	사례수
성별													
남자	16.4%	38.2%	73.6%	52.7%	11.4%	27.3%	19.5%	11.4%	16.4%	20.0%	9.5%	3.2%	220
여자	22.3%	54.8%	77.7%	35.7%	13.4%	29.3%	6.4%	9.6%	21.7%	14.6%	12.7%	1.9%	157
소속별													
고등학생	15.3%	52.5%	77.2%	43.6%	9.4%	25.7%	11.9%	9.9%	15.3%	20.3%	16.3%	2.5%	202
직업전문학생	22.9%	35.6%	73.1%	48.0%	15.4%	30.9%	16.6%	11.4%	22.3%	14.9%	4.6%	2.9%	17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4.8%	44.4%	70.4%	59.3%	3.7%	22.2%	22.2%	7.4%	11.1%	22.2%	18.5%	3.7%	27
보통임	19.0%	45.4%	76.8%	44.4%	12.1%	28.6%	13.0%	11.1%	19.0%	17.1%	10.8%	2.5%	315
어려운편	20.0%	42.9%	65.7%	45.7%	20.0%	28.6%	17.1%	8.6%	20.0%	20.0%	5.7%	2.9%	35
전체	18.8%	45.1%	75.3%	45.6%	12.2%	28.1%	14.1%	10.6%	18.6%	17.8%	10.9%	2.7%	377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73.6%는 ‘여행’, 52.7%는 ‘스포츠 감상 및 활동’, 38.2%는 ‘시간제 일’, 27.3%는 ‘음악감상 및 제작’, 20.0%는 ‘컴퓨터 게임’에 흥미를 느껴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라고 하며, 여자의 경우 77.7%는 ‘여행’, 54.8%는 ‘시간제 일’, 35.7%는 ‘스포츠 감상 및 활동’, 22.3%는 ‘사진’이 흥미를 느껴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소속별로 보면 고등학생은 직업전문학교학생에 비해 ‘시간제 일’과 ‘컴퓨터 게임’, ‘TV시청’에서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직업전문학교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사진’, ‘그림감상 및 제작’, ‘음악감상 및 제작’, ‘낚시’, ‘춤’, 등의 활동에 대해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경제수준별로 전체적인 경향은 ‘여행’, ‘스포츠감상 및 활동’, ‘시간제 일’ 순으로 흥미를 느껴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 이야기하며 빈도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청소년들이 금전적 여유가 있을 경우 하고 싶은 일 3가지를 선택하게 한 후 사례수의 300%를 전체로 합하여 빈도를 살펴보았다. 전체의 90.2%는 ‘여행’, 60.2%는 ‘각종 스포츠활동’, 56.2%는 ‘영화감상’이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면 하고 싶은 일로 제시하며, 이외에도 ‘컴퓨터 게임 및 통신’(21.5%), ‘각종 자원봉사활동’(17.5%), ‘음악감상’(17.2%) 도 하고 싶은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남녀별로 전체적인 경향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단지 ‘각종 스포츠활동’, ‘컴퓨터 게임 및 통신’, ‘디스코장 출입’에서는 여자에 비해 남자의 반응비율이 높고, ‘노래방 출입’과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반응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속별로도 전체적인 경향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각종 자원봉사활동’에 직업전문학교학생 보다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아서 최근 발표된 교육개혁 내용 중 ‘종합생활기록부’의 영향이 있는 듯 보이며, 직업전문학교학생의 경우 ‘음악감상’, ‘각종 스포츠활동’에서 고등학생보다 높은 반응을 보인다.

〈표 22〉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3가지 선택)

	여행	음악 감상	독서	각종 스포츠	영화 감상	컴퓨터 게임 통신	디스크장 출입	노래방 출입	각종 자원봉사	종교 활동	사례수
성별											
남자	89.1%	18.6%	7.3%	63.2%	55.0%	26.8%	19.1%	5.0%	9.5%	5.5%	220
여자	91.7%	15.3%	6.4%	56.1%	58.0%	14.0%	11.5%	12.1%	28.7%	5.7%	157
소속별											
고등학생	91.1%	13.9%	6.9%	57.4%	58.4%	21.8%	15.3%	7.9%	19.3%	7.4%	202
직업전문학생	89.1%	21.1%	6.9%	63.4%	53.7%	21.1%	16.6%	8.0%	15.4%	3.4%	175
경제수준별											
잘사는 편	88.9%	33.3%	.0%	66.7%	55.6%	18.5%	11.1%	7.4%	11.1%	7.4%	2
보통임	90.8%	15.9%	7.3%	58.7%	59.0%	21.0%	15.2%	7.9%	19.0%	4.8%	315
어려운 편	85.7%	17.1%	8.6%	68.6%	31.4%	28.6%	25.7%	8.6%	8.6%	11.4%	35
전체	90.2%	17.2%	6.9%	60.2%	56.2%	21.5%	15.9%	8.0%	17.5%	5.6%	377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 편’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88.9%가 ‘여행’, 66.7%가 ‘각종 스포츠 활동’, 55.6%가 ‘영화감상’, 33.3%는 ‘음악감상’을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경제수준이 ‘보통’인 경우의 청소년들은 90.8%가 ‘여행’, 59.0%가 ‘영화감상’, 58.7%가 ‘각종 스포츠활동’, 21.0%가 ‘컴퓨터 게임 및 통신’이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이라고 한다. 경제적 수준이 ‘어려운’ 청소년은 ‘여행’(85.7%), ‘각종 스포츠활동’(68.6%), ‘영화감상’(31.4%), ‘컴퓨터 및 통신’(28.6%)이 금전적 여유가 있을 경우 하고 싶은 활동이라고 제시한다.

5) 청소년복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청소년에게 정부 등에서 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한 후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전체 청소년의 46.4%는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보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가장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며, 그 다음은 ‘근린지역의 잔디구장 확충 및 무료 수영장 운영’ (15.6%), ‘청소년을 위한 사회시설 이용료 할인’ (11.9%), ‘청소년 취업교실 및 고용기회의 확대’ (10.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욕구가 높다.

〈표 23〉 복지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것

	근린지역	문화공간의	청소년	실업	청소년	컴퓨터	청소년	지역사회	사례수
	잔디구장	확보 및	사회시설	청소년	취업교실	정보통신	전용	자원의	
	확충 및	프로그램의	이용료	대부제도	및 고용	센터의	방송운용	청소년	
	이용	개발	할인		기회 제공	무료운용		복지 참여	
성별									
남자	22.7%	45.0%	10.0%	2.3%	9.1%	4.1%	2.7%	4.1%	220
여자	5.7%	48.4%	14.6%	7.6%	12.7%	7.0%	2.5%	1.3%	157
소속별									
고등학생	14.4%	49.0%	12.4%	4.5%	7.4%	6.4%	3.0%	3.0%	202
직업전문학생	17.1%	43.4%	11.4%	4.6%	14.3%	4.0%	2.3%	2.9%	17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8.5%	40.7%	14.8%	7.4%	11.1%	7.4%	.0%	.0%	27
보통임	14.3%	47.3%	12.4%	4.8%	10.2%	5.1%	3.2%	2.9%	315
어려운편	25.7%	42.9%	5.7%	.0%	14.3%	5.7%	.0%	5.7%	35
전체	15.6%	46.4%	11.9%	4.5%	10.6%	5.3%	2.7%	2.9%	377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45.0%는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보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22.7%는 ‘근린지역의 잔디구장 확충 및 무료 수영장 운영’, 10.0%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시설 이용료 할인’이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며 ‘근린지역의 잔디구장 확충 및 무료 수영장 운영’에서는 여자보다 높은 반응을 나타낸다. 여자는 복지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보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48.4%), ‘청소년을 위한 사회시설 이용료 할인’(14.6%), ‘청소년 취업교실 및 고용기회의 확대’ (12.7%)를 들고 있다.

소속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보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에서 직업전문학교학생 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직업전문학교학생의 경우 ‘근린지역의 잔디구장 확충 및 무료수영장 운영’, ‘청소년 취업교실 및 고용기회의 확대’에서의 반응이 고등학생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전체의 경향과 비슷하며, 경제수준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근린지역의 잔디구장 확충 및 무료수영장 운영’과 ‘청소년 취업교실 및 고용기회의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다.

정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 또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무료로 청소년에게 제공하면 바람직한 것’을 두가지 선택하게 하고 사례수의 20%를 전체로 하여 빈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46.8%는 ‘스포츠 시설의 이용’, 37.0%는 ‘여행시 숙박 및 야영시설’, 29.0%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24.7%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 및 전시회’가 청소년에게 무료로 제공하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 24〉 무료로 청소년에게 제공하면 바람직한 것 (두가지)

	청소년 음악 및 전시회	고궁 및 문화재 관람	스포츠 시설의 이용	디스크장 이용	컴퓨터 게임/통신 이용	청소년 문화여가 프로그램	여행시 숙박/야영 시설	취업/기능 자격증 기술실습	각종위락 시설의 이용	사례수
성별										
남자	21.9%	5.9%	47.9%	7.3%	12.8%	28.8%	37.0%	17.8%	12.3%	219
여자	28.7%	5.1%	45.2%	7.0%	10.2%	29.3%	36.9%	28.7%	4.5%	157
소속별										
고등학생	20.8%	4.0%	49.0%	7.9%	11.9%	25.7%	43.6%	19.3%	11.9%	202
직업전문학생	29.3%	7.5%	44.3%	6.3%	11.5%	32.8%	29.3%	25.9%	5.7%	17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25.9%	7.4%	40.7%	7.4%	14.8%	18.5%	40.7%	25.9%	14.8%	27
보통임	25.5%	6.1%	46.2%	7.3%	10.8%	29.0%	37.6%	21.7%	8.6%	314
어려운편	17.1%	.0%	57.1%	5.7%	17.1%	37.1%	28.6%	25.7%	8.6%	35
전체	24.7%	5.6%	46.8%	7.2%	11.7%	29.0%	37.0%	22.3%	9.0%	376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스포츠 시설의 이용’(47.9%), ‘여행시 숙박 및 야영시설’(37.0%), ‘청소년을 위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28.8%), ‘청소년을 위한 음악 및 전시회’(21.9%) 순으로 무료로 제공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시하며, 여자들은 ‘스포츠 시설의 이용’(45.2%), ‘여행시 숙박 및 야영시설’(36.9%), ‘청소년을 위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29.3%), ‘청소년을 위한 음악 및 전시회’(28.7%), ‘취업 및 기능 자격증 취득 기술실습’(28.7%)과 같은 것이 청소년에게 무료로 제공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소속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 ‘스포츠 시설의 이용’, ‘야영시 숙박 및 야영시설’, ‘각종 위락시설의 이용’을 무료로 제공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직업전문학교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직업전문학교학생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음악 및 전시회’, ‘청소년을 위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 ‘취업 및 기능 자격증 취득기술실습’에서 고등학생들 보다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높은 욕구를 나타낸다.

경제수준별로 전체적인 경향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경제수준이 낮을 수록 ‘스포츠 시설의 이용’, ‘청소년을 위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인다.

청소년들에게 할인 또는 최소한 비용 지불만으로 이용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두가지를 선택하게 한 후 전체를 200%로 하여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42.2%가 ‘여행시 숙박 및 야영시설’, 40.8%는 ‘스포츠 시설의 이용’, 38.9%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 및 전시회’, 18.8%는 ‘컴퓨터 게임 및 통신의 이용’을 할인 또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원하고 있다.

〈표 25〉 할인 또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하고 이용하는데 바람직한 것 (두가지)

	청소년 음악 및 전시회	고궁 및 문화재 관람	스포츠 시설의 이용	디스코장 이용	컴퓨터 게임/통신 이용	청소년 문화여가 프로그램	여행시 숙박/야영 시설	취업/기능 자격증 기술실습	각종워킹 시설의 이용	사례수
성별										
남자	25.9%	8.6%	44.1%	9.1%	18.2%	21.4%	43.2%	8.6%	16.4%	220
여자	33.1%	9.6%	36.3%	6.4%	19.7%	26.8%	40.8%	16.6%	7.6%	157
소속별										
고등학생	27.2%	7.4%	41.6%	7.4%	21.3%	24.3%	42.1%	13.9%	12.9%	202
직업전문학생	30.9%	10.9%	40.0%	8.6%	16.0%	22.9%	42.3%	9.7%	12.6%	17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7.0%	7.4%	40.7%	3.7%	11.1%	25.9%	55.6%	3.7%	14.8%	27
보통임	28.3%	8.6%	40.6%	8.9%	19.7%	24.4%	40.3%	13.3%	11.7%	315
어려운편	28.6%	14.3%	42.9%	2.9%	17.1%	14.3%	48.6%	5.7%	20.0%	35
전체	28.9%	9.0%	40.8%	8.0%	18.8%	23.6%	42.2%	11.9%	12.7%	377

성별로 볼 때 남자는 44.1%는 ‘스포츠 시설의 이용’ 43.2%는 ‘여행시 숙박 및 야영시설’, 25.9%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 및 전시회’, 21.4%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 여가프로그램의 활용’을 할인 또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지원해 주길 원하며, 여자는 ‘여행시 숙박 및 야영시설’(40.8%), ‘스포츠 시설의 이용’(36.3%), ‘청소년을 위한 음악 및 전시회’(33.1%), ‘청소년을 위한 문화 여가프로그램’(26.8%) 등에 대해 할인 또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를 원한다.

소속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 ‘컴퓨터 게임 및 통신의 이용’, ‘취업 및 기능자격증 실습’에 대해 할인이나 최소의 비용만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것에 대해 직업전문학교학생 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며, ‘직업전문학교학생’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음악 및 전시회’, ‘고궁 및 문화재 관람’을 할인 또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원하는 비율이 고등학생에 비해 높다.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고궁 및 문화재 관람’, ‘컴퓨터 게임 및 통신의 이용’, ‘각종 위락시설의 이용’을 할인 또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IV. 청소년복지간접자본 개발

1. 개발의 방향

앞의 논의에서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은 청소년의 요구를 토대로 복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공공의 인적, 물적, 시설자원 및 재정과 제도 등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내용은 청소년의 성과 연령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이 이용하기 쉬운 복지자원의 체계화를 뜻하며, 청소년의 욕구와 생산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개발은 청소년의 요구와 복지생산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공공의 자원과 제도를 체계화하고 조직하며 새로운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선 복지의 생산성과 청소년의 요구 그리고 이와 함께 복지자원의 효율성 및 사회정의와의 부합 등의 요소가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또한 각기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복지의 생산성과 사회정의 그리고 청소년의 욕구와 복지자원의 효율성과의 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개발방향과 이념의 근거를 삼고자 한다.

1) 복지의 생산성과 사회정의

자본주의 체제의 복지에 있어 보편적인 이상향은 완전고용이라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기능력에 맞게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할 수 있는 상태는 경제학자 또는 일

부 복지전문가와 정치 지도자들이 꿈꾸어 왔던 세계이다. 이 완전고용상태에서 벗어난 즉, 개인적인 능력이나 신체적인 결함 또는 불가피한 환경적 요인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국가들은 각종의 복지 혜택을 주어 왔으며 이 혜택은 거시적으로는 노동력의 보호와 구매력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미시적으로는 사회문제의 제거와 국가적 위신과 자긍을 가질 수 있다는 데서 그 효용성을 측정해 왔다.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과학과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되었고, 풍요로운 사회를 맞이하면서 노동 인력은 점차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서비스 산업이 고용자에게 주는 낮은 부가가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편리함과 약한 노동 강도로 인해 사람들은 끝없이 서비스 산업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한편, 많은 학자들이 후기산업사회를 문화사회로 예측하면서 서비스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한 직업과 직종이 등장하고 새로운 직업이 매일매일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서구선진국가에서의 실업률은 감소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국가적 난제로 손꼽히고 있다. 더욱이 문화사회로의 이전과 후기산업사회에서의 노동력의 수준차와 고부가가치적 노동의 요구는 새로운 노동 엘리트 계층을 만들어 내는 한편, 상대적이며 자발적인 실업률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컴퓨터 또는 통신 및 문화산업분야의 노동력은 점차 고용인이 아닌 자기 노동능력의 자본가로서 고소득과 자율적인 시간 활용 등의 높은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한편 단순 서비스 산업이나 농업 또는 공업의 노동자들은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일의 형태로 인해 예전처럼 도제화된 일로서의 평생 직업의 의미가 누락되며, 전반적으로는 삶의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노동에 대한 절박함을 갖지 못할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예견된다면 노동생산성의 강조는 한낱 구호에 불과하고 분과 초의 관리를 하면서 노동 인력을 기계적인 상황에 몰아넣으려는 노동 착취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 자체가 삶과 분리된 생활 수단으로서 전락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받고 있는 심각한 오해 속에 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다. 즉, 모든 사람들이 후기산업사회의 풍요와 문화적 향유의 시대를 누릴 수 있다는 문화산업의 현혹은 노동을 희화화시키며 그 가치를 절하시킬 수 있다. 사실 미래사회의 문화의 향유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실체보다 포장된 꿈같은 현실 속에서 마치 문화적 동원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는 현란한 상술 속에서 살 뿐일지도 모른다. 그같은 현실 속에서 노동의 생산성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주하여 노동의 가치를 논하는 일은 복지가 한낱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의 앞서가는 지배 엘리트의 논리에 달콤한 시녀가 되는 것 외에 논쟁거리가 없을 지 모른다.

그럼에도 생산적 복지를 노동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타당할까? 이에 대한 답은 그것이 타당하도록 사회정의와 윤리적 가치를 내재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의 주장은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어려운 청소년이라도 선택적 처방과 함께 청소년복지 간접자본이라는 보편적인 혜택을 받아야 하며 그 속에서 그들의 욕구가 충족 또는 적절히 통제되어 올바른 가치관이 나오며 그 구체적인 실체가 삶의 중심에서의 노동이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는 목표가 아닌 인간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지는 무엇이 되는 상태와 수동적으로 이룩되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다. 복지 수혜자들은 여전히 수혜자로서의 기능 외의 것은 기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예산의 확대는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라 소비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선진국형 복지국가

의 폐해를 모방하지 않아야 한다는 복지국가 위기론과 제를 같이 하면서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기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생산적 의의를 과소평가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목적은 그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그 목적은 자립일 수 있고 재할 또는 갱생일 수 있다. 현재의 상태로는 그의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의료적·사회적·직업적 재활을 이루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다(김현용, 1993). 사실 복지를 통한 수혜자들의 자립 의지는 윤리적인 논란이 될 수 있다. 복지가 삶의 문제해결의 방편이지 수단적 가치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가 하나의 국가정책적 수단이자 이념으로 설정될 때에는 의도성이 내재될 수밖에 없다. 단지 그 의도가 이념이나 사상을 초월하여 도덕적이며 윤리적이고 수혜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문제는 간단히 취급할 일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복지 수혜자와 생활 범위와 복지시혜자의 생활 영역을 비교적 뚜렷이 구분하여 왔다. 또한 우리와 그들이라는 가치평가적인 범주로 분할하기도 하였다. 극명한 예로는 복지수혜자에게는 유효기간이 지난 통조림도 그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며 인체에 큰 피해가 없다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러한 것이 바로 복지의 한계이며 그것이 복지국가의 폐해를 막기 위한 즉, 노동의 유인가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인되어 왔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를 대체할 수 있고 복지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수단이 노동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의 비용 부담 또는 노동을 위한 최소한의 구매력과 노동력 확보로서의 복지적 관점이 옳다고 볼

수 없다. 이제는 복지적 환경을 통한 노동의 의미와 방법을 개개인이 고려하는 정책으로 복지에 대한 근본 시각이 변화되어야 한다.

비록 이같은 논리가 설득력의 부족 및 제반의 사회적 여건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 계층에 대한 광범위한 복지 인식의 틀로서는 미약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 계층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청소년은 현실적인 노동 자원인 동시에 장차 주요한 국가의 노동력으로서 보호 및 육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복지의 생산성 즉, 생산적 복지는 장기적인 안목과 그들을 복지 대상으로서 낙인됨이 없이 사회적 보호와 권리를 통해 노동에 대하여 근본적인 물음과 삶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표현 수단인 노동을 인식하고 장차 준비하려는 거시적인 사회적 지원 차원에서 계획되고 구안되어야 한다.

2) 복지자원의 효율성과 청소년의 요구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 중의 하나가 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이다. 복지 자원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전제로 형성되고 개발된다. 따라서 복지 자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윤리적 측면에서도 합리성을 지니며 복지 수혜자들에 대한 공평한 기회와 배분이라는 면에서도 복지 자원의 효율성은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복지 자원의 전달 방식의 합리성과 효율적인 체계의 운용은 복지의 이중적 혜택과 복지 수혜자로서의 자격 요건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관심은 문제를 가진 개인이다. 문제를 가진 개인은 원활한 사회적 기능에 장애가 있으며 그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자원을 배분하는 전문직이 사회사업이라고 볼 때 사

회사업에서 복지 자원과 욕구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항상 배치되는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다. 개인의 욕구는 무한에 가깝다. 사회복지가 개개인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관심이 있지만 정책적인 대상으로서의 개인에게 그같은 노력은 잘 조직된 체계와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현실적으로 복지 대상자의 욕구와 부합하는 정책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일 것이다.

그런데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욕구에 대한 사정과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지만 기초적 욕구에 의한 효율성의 측정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초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세가정지원에 있어 100억원의 재정이 확보되었다더라도 산술적으로 100만 가정에 1만원씩 배분됨으로써 그 기초생계비의 근사치에 가까운 지원이나 아니냐의 문제만 고려할 수 있지 그 비용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측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복지예산지원의 선택성 여부에 따른 효율성은 평가될 수 있지만 복지재정자체가 효율적인 운용을 하고 있느냐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효율성 측정이 유효한 상황이라면 복지 수혜자들의 환경이나 자산 조사를 통한 적절한 복지 자원의 배분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즉, 실제조사를 통해 복지 대상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자원분배의 양과 종류를 결정하는 일은 복지 자원의 배분의 측면에서 효율적 요소가 충실히 개입될 수 있는 기초적인 전략 또는 전술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본 개발 방향에서의 논의는 개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전달과 분배가 아닌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 복지 자원이 전체 복지 자원에서의 효율성을 가져야 하는 것과

함께 청소년들의 욕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데 있다. 앞서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의 복지 자원은 보편적 처방의 자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것은 청소년들의 욕구와 복지 환경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응답 청소년 376명 중 87.2%가 청소년 복지 대상 영역을 모든 청소년에게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표 14〉 참조) 따라서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필요성은 제한적이지만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본다. 그러나 전달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적 논리와 이론적 시각에서 효율성 측정 도구를 마련하고 평가하는 것에 앞서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가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의 만족도가 효율성으로 표현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복지 자원의 특성상 수혜자는 복지자원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 내용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자체가 바로 효율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복지국가 내의 프로그램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은 서비스 소비자의 만족도와 선호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기저에 깔려 있는 가정은 현존하는 복지자본주의의 이념적인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접근 방법은 수혜자에게 그들이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골라서 사는 것처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하도록 물어 보는 방법이다. 한편에서만 볼 때 이러한 평가방법은 사람들의 눈을 끄는 개량 제품이 질 나쁜 물건보다 당연히 우세한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소비자 선택의 시장 기준을 측정해 보는 한 가지 방도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다(정진영 역, 1993).

그렇지만 프로그램의 실행에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요소는 프로그램의 소요비용(인적 자원 포함)과 사회적 타당성이다. 즉,

청소년 욕구의 만족도가 효율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편, 그 요구 자체가 타당성이 검증되어진 것이냐 하는 의문이다. 물론 이것은 앞서 논의한 청소년복지간접자본개발에서의 생산성과 사회적 정의의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흔히 가난한 청소년의 욕구는 중산층의 청소년의 욕구와는 다른 것이라 취급된다. 경우에 따라서 또는 개인차에 따라서 이 인식은 타당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청소년의 특성과 그들의 가난은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가난에 대한 책임을 청소년이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청소년은 성인과는 달리 현실적 여건을 전적으로 수용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본다. 실제 우리는 소년소녀가장의 집에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사진과 인형 그리고 최신곡이 수록된 테이프를 보며 ‘어쩌면 그럴 수가’하는 배신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본다. 물론 우리의 낮은 복지수준과 환경 그리고 인식을 내보이는 일부의 시각이라 간주할 수 있지만 깊이 해석하면 복지 수혜자를 보는 우리의 숨겨진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우한 청소년의 복지 욕구가 생존과 자신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효율성은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의 욕구가 아닌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성취해야 하는 사회적 과업과 심리적 욕구 충족을 환경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욕구 충족에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초점이 맞추어질 수는 없다. 적어도 청소년의 욕구는 통제 또는 관리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이 사회 통제 즉 청소년 통제 수단으로서 허울좋은 목적 아래 철저히 계산된 음모라는 비난도 있을 수 있다. 소위 복지의 음모이론은 이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자들의 음모와 복지

의 사회통제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한 견해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음모이론은 인도주의나 동정에 의해서 사회정책 또는 복지정책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지배 엘리트의 반응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통제와 노동윤리의 강조는 음모이론의 주요 목표이다. 지배 엘리트는 어떤 예측 가능한 행동의 유형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그들의 이익을 방어하며 우월성을 주장한다고 한다(신성증 역, 1986). 어쩌면 이러한 비난은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영역이 확대되는 경향과 함께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전국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발언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성을 존중하는 복지국가의 미덕과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중앙사회복지연구회 역, 1991).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청소년은 그 자체로서 복지적 수혜대상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복지 자원을 생산하고 적절히 분배하는 기능적인 활동을 윤리적으로 그리고 보다 현실성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연마하는 시기이다. 또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소년의 욕구 관리와 통제는 사회적 책무이며 의무이기 때문이다.

한편, 청소년의 욕구 관리는 복지 자원의 효율적 운용의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물론 복지 자원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욕구는 사회지표 더 나아가 청소년지표의 기준에 대한 욕구와 그들이 표현하는 욕구가 주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욕구 측정에 있어 지표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바 없지만 청소년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리 통제의 일차적인 기준이 되며 효율성을 측정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표현된 욕구는 일정한 사회의 틀과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껏 발산될 수 있

어야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일반적인 욕구 충족과 효율성의 관계는 마치 100만원으로 수혜대상 청소년에게 옷을 사줄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옷을 구비해 원하는 대로 빌려줄 것인가와 유사할 것이다. 물론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며 효용성이 있는가는 쉽게 판단될 수 없지만 적어도 복지 자원이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의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다면 청소년복지간접자본으로서의 전환은 복지의 재생산까지 유도하며 공동체와 연대감이라는 과실까지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간접자본의 공공재로서의 특성과 연결되는 의미이다. 한 재화가 공공재로 되기 위해서는 집합체가 있어야 하며 이 집합체의 구성원들이 그들 스스로를 ‘우리’라고 불러야 한다. 이러한 집합체가 없다면 재화가 공공재로 될 때 이 공공재의 지시 대상이 없어지는 셈이다(이병천, 박형준 편, 1993).

궁극적으로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은 복지국가의 도덕성과 분배의 효과성에 기초하여 복지수혜계층에 대한 선택적 처방과 병행하여 복지시혜자들과 또한 같은 수혜자들간의 프로그램과 급부의 간격을 형평화할 수 있는 대안적 노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것은 청소년에게 사회와 문화의 발전에 따른 과실을 경쟁적 또는 경제적인 시장경제의 논리 속에서 차등을 두지 않고, 성인집단과는 달리 비록 그들이 경제적 성과의 중심에 서 있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가능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윤리적 타당성 그리고 민주사회의 기본 정신을 발현하기 위한 이념적 발로이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정책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할 것은 부유한 계층이 아니고 노동자인 것처럼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은 청소년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들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기를 겪는 전인적 존재로서 노동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면서 ‘자기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토대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는 한 유용할 것이며,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은 복지와 수혜자 부담 원칙의 복지적 인식을 무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현재 청소년 스스로 자발적으로 또한 자율적으로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의 효율적인 배려인 것이다.

2. 개발의 분야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개발 영역은 설정하는데 있어서 앞서 논의한 것처럼 기존의 자원의 복지자원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새로운 복지자원을 생성해 나가는 방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발의 영역은 복지의 생산성과 청소년들의 생활의 질의 향상의 요소가 항상 전제되어야 하며 이같은 개념은 올바른 노동의 태도와 전체 삶의 핵심적 요소로서의 노동의 수용 과정과 함께 청소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문화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같은 개발의 영역을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26>과 같다.

<표 26> 청소년 복지간접자본의 영역

분 류		복지간접자본적인 자원	복지간접자본
생산복지적 자원	유 형	청소년회관(근로청소년회관)	자원봉사 센터
		국립직업안정소	청소년취업교실
	무 형	직업훈련프로그램	창업자금 지원 및 대부제도 소득보장체계 확립 노동교육프로그램
생활복지적 자원	유 형	스포츠 시설 및 놀이 공간 문화공간	청소년정보센터 운용
	무 형	각종매체 및 컴퓨터 통신 각종할인제도	컴퓨터통신무료 지원 지역사회연계활동지원

아래의 표에서 복지간접자본적인 자원은 현존하는 복지 자원 또는 복지와 관련되는 자원으로 복지간접자본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고, 복지간접자본은 현재의 복지관련자원으로서 복지간접자본의 내용 속에 포함할 수 있거나 장차 복지간접자본으로 개발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위의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 개발되어야 청소년복지간접자본으로서의 역할과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발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밝힌다. 물론 이 같은 구분과 내용 이외에도 주위의 많은 자원들이 청소년복지간접자본으로 전환하거나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분야는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용어가 매우 탄력적이고 유동성있는 자본, 다시 말해 자원을 범주화시키는 용어로서 복지간접자본으로서의 기능만 할 수 있다면 그 범위는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고 본다.

3. 개발의 내용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개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보장복지

인류역사 이래로 구호노력을 포함한 복지적 시혜가 계속되어 왔지만 수혜대상자의 욕구나 관심을 반영하는 정책과 서비스는 전무했다. 아직도 복지는 주는 관계속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한다. 부분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에 흡수하려는 의지는 간혹 보여 왔지만 심리적인 관점에서 머무를 뿐 인간은 자율적이며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라는 복지의 중요한 기본 원칙은 이념적 구호로만 존재했다.

실천적인 면에서 인간의 자율성은 철저히 무시되어 왔으며 국가나 민간구호단체의 재정적 형편 또는 신념에 따라 복지수혜대상자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정한 소득을 갖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이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계획을 주고 희망을 준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도 해당된다. 소득은 노동의 시간과 연관이 있다. 그러나 노동 시간의 비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노동의 질과 노동 형태의 다양성 그리고 노동의 수요와 공급간의 분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또한 노동에 관련된 의식의 향상 및 인간 생활에 대한 질적인 관심 등은 적은 노동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 생활 방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소년에게 있어 노동은 성인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아직도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노동의 대부분은 노동집약적인 일로서 노동의 시간과 생산성이 비례하며 시간에 따른 소득도 결정된다. 이와는 달리 소위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시간제 노동(일)은 노동에 따른 각종의 장치 즉, 휴가, 휴직, 병가 등의 노동의 복지 여건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동의 가치보다도 단순한 금전 획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복지간접자본으로서의 소득 보장은 두 가지 수준에서 접근과 전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전일제 노동 청소년을 위한 소득 보장이다. 이것은 국가의 복지 또는 노동정책 아래서 충분한 배려와 보호가 있지만 노동 인력이 청소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기보다는 노동에 대한 대가가 노동의 기술과 자본으로서 축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다음의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로청소년 소득세 감면 또는 갑근세 면세점에서 성인의 그것과 다른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세제 지원 방법이며, 근로청소년을 위한 적성 및 직업적 능력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인 관리 체제 마련과 같이 근로청소년의 기술 및 직업적 능력 측정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재산형성 교육 및 상담과 올바른 소비생활 방법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근로청소년을 위한 소득 관리 교육도 고려할 만하다.

다른 하나는 소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시간제 일에 대한 소득 보장자본의 지원이다. 사실 시간제 일에 대한 노동조건은 대부분 전일제 노동에 비해서 열악할 뿐만 아니라 소득의 면에서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 반면에 시간제 일이 청소년에게 노동의 대가로 금전을 획득하여 자율적으로 소비하는 자발성보다는 소비적 성향을 조장하는 요소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간접자본으로서의 시간제 일에 대한 소득보장은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동의 대가에 대한 소중함을 가일층 인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을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시간제 일에 대한 등록체계마련과 소득의 일정 비율을 장기 저축에 유도하고 저축 금액의 일정 비율을 교통비로 보조함으로써 시간제 일의 등록 및 장기 저축을 전제로 한 교통비 보조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시간제 일을 개발 관리하고 사용자와 시간제 일을 원하는 청소년과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시간제 일(아르바이트)은행 설립 또한 청소년을 위한 좋은 간접 자본이 될 것이다.

2) 문화 및 체육 공간의 보호 및 개발

우리 주변에는 많은 문화 및 체육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 환경에 여유가 생김으로써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양적으로나 다양성의 면에서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와 함께 공간이나 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수련거리)도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이 문화나 여가 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업적인 공간과 매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미래사회에서 문화가 갖는 기능은 그 어느 사회보다도 크고 다양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삶의 질’이란 요소 중 문화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의 질을 종합적인 복지상태라고 말할 때 그것은 외형적인 생활수준 뿐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감의 상태도 나타내는 것이라 보면, 문화는 보다 고차원적인 삶의 질의 개념을 표현해주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은 성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를 누리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어찌면 청소년에게 삶의 질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냐 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먹고 입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아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청소년이 동일한 문화향수를 갖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생활과 시간 여유가 있는 극소수의 청소년에게만 문화생활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골프장과 종합체육관이 수익성이 높은 영리사업으로서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것 또는 일부 성인과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고급문화인 것처럼 경제적 여유와 문화가 비례하는 문화적 기형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면에서 청소년복지간접자본에서의 문화와 체육 공간 및 시설은 청소년의 생활 속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으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이러한 문화 및 체육 공

간은 청소년의 욕구에 따라 개발되는 것이 일차적으로 타당하지만 보다 깊게 고려해야 할 것은 청소년 육성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계획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몇년 전 사회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디스코장을 만들어 청소년층에게 호응을 받았지만 지속되지 못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디스코장에 대한 청소년의 선입관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그에 대체할 만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약간은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청소년의 디스코장에 대한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단순히 디스코장이라는 물리적 시설만 건전 공간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의 반응은 성인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문화 및 체육공간의 청소년복지간접자본화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다음의 방안은 문화 및 체육공간의 청소년복지 간접자본내용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우선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뛰어 놀 수 있는 잔디공간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지역사회 빈 공간에 잔디심기 운동을 제안할 수 있으며, 둘째는 문화소극장을 개발하여 청소년을 위한 영상음악과 영화(비디오)를 상영하는 상설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문화에 관련된 각종의 교육 및 훈련내용을 제공하는 센타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할인 및 대부제도 확대

흔히 극장이나 고궁에 가보면 성인과 청소년사이에 입장요금의

차이가 있다. 상당수의 공공시설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성을 띤 사업 등에는 청소년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할인요금은 거의 형식적인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만 할인함으로써 공공시설 및 장소 운영주가 갖는 명분에 비해서 청소년이 받는 혜택은 미미하다.

예를 들어 상업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의 경우 중고등학생 연령층에게는 성인관람요금의 10% 정도를 할인한 금액을 받고 있지만 그것도 10대가 아닌 20대 청소년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로 구분된 청소년이 갈 수 있는 영화는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사실상 성년층으로 분류되어 비교적 영화의 선택폭이 넓은 20~24세까지의 연령층은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영화의 고객입장이 될 때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로 구분하여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통요금도 학생용 쿠폰 등으로 내도록 되어 있어 쿠폰을 구입하지 않은 청소년은 성인 요금을 받고 있으며 정작 무직 청소년은 교통요금체계 속에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수의 공공시설과 공원들이 간혹 할인요금혜택을 줄 때 학생증 제시를 일괄적으로 요구해 근로청소년 또는 무직청소년에게 좌절감을 심어 주므로, 경우에 따라서 청소년할인혜택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를 유치하는 공연장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좌석표가 대부분 관람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을 선정해 마치 선심을 쓰듯이 청소년용 좌석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 및 체육시설에 대한 할인 혜택이 있지만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경제적 여력에 맞는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서

퇴색한 전시 효과적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할인혜택제도는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하나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몇 가지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할인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사안에 따라 일정한 할인 비율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공공 지원 또는 운영자에 대한 보조여부 결정하여 할인 폭과 내용을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할인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의 전석석 중 등급에 따른 일정 비율을 청소년 좌석으로 할당하며 공공 기금에서 그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할인카드를 도입하여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문화 공간에 대한 할인 혜택을 규정하고 일정회수 이상 참가 청소년에게 할인을 해주는 것도 유용하다.

한편, 청소년을 위한 자금 대부 제도에 관해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한 연구인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의 정책적 제안부분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청소년육성기금 중 일정액을 활용하여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들에게 일정 절차를 거쳐 융자할 수 있는 대부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하며, 그 이유는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경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들의 실태조사 결과 11%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각각 개인 사업이나 장사 자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이를 위해 20세 이상과 같은 일정 연령 이상의 해당자들에게 진학비용 및 직업훈련기간의 생계 유지비용 등을 융자할 수 있는 대부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기간이나 취업 후 상환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김정명 외, 1989 참조).

이같은 특수 청소년 대부 제도에 더해서 청소년이 자영업을 하

거나 또는 모험 산업에 대한 창의적 분야의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융자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시장경제 체제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여건의 어려움 청소년에게 연령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장차의 정보지식사회와 문화산업 시대에서 창의적인 구상을 스스로 현실과 접목시키는 노력을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하나로 지원할 이유는 면밀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방법은 다양한데, 우선 청소년 창안 및 모험활동에 대한 사업으로서의 융자 지원, 둘째 무직청소년의 창업자금지원, 셋째 학자금 및 훈련비용 대부의 활성화 등이다.

4) 청소년 취업 교실 및 고용기회 확대

청소년기의 주요한 과업 중의 하나가 직업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다. 산업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에 있어 숙련되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기술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청소년기는 장차 노동을 준비하는 주요한 시기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직업과 일이 점차 분업화됨에 따라 노동은 기능적인 면에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어 삶의 과정으로서의 노동이 아닌 생활의 수단으로서 평가받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듯이 노동이 생존의 수단이라면 그를 위해 투자하는 인간의 노력이 너무 과중하다. 따라서 삶 전체의 힘을 기울여 노동을 하는 것이라면 노동은 삶의 전 과정에서 의미 있는 부분으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또한 노동에 대한 가치와 평생의 일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청소년기에 노동의 의미는 철저히 청소년들 스스로에게 그들을 도와주는 성인 집단에 의해 고찰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기가 노동의 준비기만이 아닌 실제 노동현장의 가운데서 삶의 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있다. 소위 근로청소년들인 이들에게는 노동이 삶의 의미로서보다는 단순한 생활수단으로서

의 기능만 요구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청소년들에게 현재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어려움을 수용하는 프로그램과 그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각종의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 취업 교실(취업을 원하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양교육교실), 둘째 청소년 직종 개발 프로그램(비조직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포함한 청소년 직종 개발)과 같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

5) 컴퓨터 정보통신센터의 운용

흔히 미래 사회는 지식정보혁명에 의해 달성되는 정보화 사회라고 예측한다. 미래학자들은 그런 사회가 도달할 것이라 예견하고 산업 사회의 기술과 인식으로 생활한다면 이러한 성격을 갖는 미래사회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송희식은 이에 대해 농업과 공업과 지식정보는 동일한 사회적 범주가 아니라고 말하며 농업과 공업생산물은 인간이 삶에 소비하는 물품이지만 지식정보는 우리의 삶에 소비하는 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식정보는 인간과 인간을 결합하는 방식이지 개인이 생활에 소비하는 물품이 아니라며 미래사회에 대한 성격규정에 대해 논박하고 있다(송희식, 1995).

그럼에도 그는 미래사회에서 지식정보혁명의 비중에 대해서는 문화사회로 이전하는 획기적인 매체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미래사회를 곧 정보와 지식으로 대변되는 사회가 아닐지라도 정보와 지식 그리고 그들의 전달체계인 통신과 컴퓨터는 주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변수로 나타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미 청소년에게 컴퓨터는 다른 생활의 보조 수단이 아닌 교육과 문화생활의 주된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이 컴퓨터와 통신 및 정보체계에 대한 지식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회문

화의 중요한 장으로서 청소년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이같은 지식정보와 컴퓨터가 대중화되는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전달 체계를 잘 활용한다면 인간과 인간사이의 소외를 없애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이전처럼 정치인이나 선망하는 연예인이 그림으로 또는 영원히 동경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대화할 수 있고 그의 움직임에 따라 나의 반응을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컴퓨터 문명의 발전이 인간의 소외를 가속화시키고 기계화된 삭막한 문명을 창출할 것이라 우려를 하지만 한편, 정보 통신 그리고 컴퓨터의 예측 불가능한 발전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결합하는 강한 끈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맥락에서 청소년들에게 정보통신센타의 기능을 하는 복지자원은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잠재적 역량과 가능성을 마음껏 실험해 보는 장을 열어 줄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보를 얻고 원하는 분야 또는 사람들에게 통신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일은 문화사회로 이전하는 청소년에게 빈부, 학력 그리고 장애에 격차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자원을 형성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6) 공공매체방영센타운용

1970년대 소위 통기타와 생맥주 그리고 청바지로 상징되는 청년문화논쟁이 일어날 무렵 청소년문화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부 청소년들의 의식 속에 맴도는 청소년들만의 문화 영역도 스스로 청년문화의 아류 정도로 취급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청소년은 사회문화 및 각종 매체의 중요한 소비자로서 등장하고 있다. 청소년들 스스로 소득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들의 문화적 소비량은 성인들의 그것과는 또 다른 수준에

서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주도권은 성인들의 소외를 가중시킬 만큼 신속하고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와 매체에 대한 기대는 이전의 청소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정보와 문화적 향유를 할 수 있는 공공매체를 운용하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고려할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 정보 문화 방송국의 설치를 통해 청소년들이 적합한 각종의 정보와 생활문화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청소년 복지의 간접자본으로서 유용할 것이다.

7) 자원봉사자본

최근 들어 교육개혁과정을 계기로 일어나기 시작한 자원 봉사의 열기는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자원 봉사가 종교적 인간애의 발로인가 아니면 민주사회의 시민 정신인가라는 논란은 불우한 이웃을 낙인찍은 종교적 시혜심과 개인주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예방적 수단이라는 비난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철학적 배경과 이념이 어떠한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청소년자원봉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자아와 사회 정체감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자원봉사의식 및 활동을 통해 민주사회시민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하나는 청소년들의 자원 봉사가 간접적으로 청소년 비행 또는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원 봉사 활동은 선한 동기를 유발한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의 의미보다는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인 체험을 하는 한편, 더불어 사는 이웃과의 관계

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자원활동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복지 자원의 관점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가 더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은 하나의 청소년복지간접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과 비슷한 연령의 청소년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자원이 됨으로써 사회복지의 주체이자 객체로서의 정서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간접자본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은 또래상담을 비롯하여 레크리에이션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세계에서 내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

V. 결 론

한 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청소년의 위상과 권리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사회 전반에 걸쳐 여유가 있으며 사회의 발전 역량의 축적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한편,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관심이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육성의 긍정적인 수준이 아닌 청소년이 사회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 요소에 대한 제거와 완화에 있다면 그것은 청소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이라기 보다는 청소년의 편협한 비행과 문제행동 등만을 강조하여 성인들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매우 이기적이며 어른답지 못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사회의 안정과 도덕가치의 회복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개선 방향의 면에서 청소년문제의 위치를 강조할 수 있지만 성인들이 청소년에 대해 외치는 것만큼 규제적이며 규범적인 족쇄를 채움으로서 청소년을 왜소화시키는 이율배반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자칫 성인들이 저질러 놓은 사회의 구조와 해체적인 문제를 청소년에게 돌려버리려는 험악한 음모로 비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음모도 점점 불가능해지는 상황 속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이 엄연한 하위문화를 창조하고 이끌어 나가며 사회소비계층으로 등장하고 그들의 삶이 유보된 상태가 아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요한 삶의 일부분을 거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한 배경에는 점점 창의성과 문화적 기능성을 요구하는 사회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정 등이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정책적 차원

에서 볼 때 이제 청소년은 단지 선언적인 의미에서 미래의 주인공이 아닌 냉정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의 미래사회와 국제관계의 모습을 결정한 잠재적 자원이며 오늘날과 같은 전천후 국민역량 집합시대에는 현실적인 자원이 된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 ‘환경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 쓰는 자원’이라는 말처럼 청소년은 현재를 반영하는 거울이며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잠재력이 풍부한 가공되지 않는 보물이다. 청소년은 한 사회의 활력의 상징이고 그 사회의 미래를 조망하는 가늠자의 역할까지 한다. 이렇듯 청소년이 갖는 국가사회적 의미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누구나 청소년 육성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육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법은 재원부족과 정치경제적 우선 순위의 고려 등에 의해 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청소년은 성인들의 안타까운 선의를 표현하는 일차적인 대상으로 구호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이상과 현실 그리고 실질적 지원과 여건 사이의 괴리를 타하기에는 가시적인 절박함이 늘 존재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이 한낱 성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우려를 나타내는 감초처럼 이용되기에는 어느새 그들의 존재가 사회에 너무 깊숙이 다가왔으며, 동등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도 은연 중에 청소년의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청소년복지도 문제 및 사회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선택적인 해결방안 모색 및 제도적 장치와 함께 복지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청소년들에게 복지자원을 통한 잠재적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립하여 주체적으로 복지를 향유하며 장차 복지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육성의 정

책방향을 청소년들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고 관리하는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미 사회복지가 선택적 처방만의 패러다임을 고집하기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환경 및 교통 그리고 국제관계 등의 문제는 사회복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은 청소년복지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가 그들의 현재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자긍심을 심어 줌으로써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신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한편, 중요한 국가인력자원으로서의 생산적 복지에 참여하여 자신의 성장이 곧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 청소년복지간접자본의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음의 글은 앞으로의 청소년복지 전망에 새로운 시사를 준다

“우리사회는 시민들이 생활의 안락을 누리려는 욕구를 충족케하는데 큰 관심을 두어 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시장기능의 일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상품화되어 그것을 원하는 사람의 구매 의사에 맡겨지는 것이다. 생활의 충실감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 모두가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사회정책적 배려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다른 차원의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한림과학원 편, 1995).

참 고 문 헌

- 김유성, 사회보장법, 동성사, 1985.
- 김용일 외, 사회사업실천론, 나남출판, 1995.
- 김정명 외, 요지원 무직미진학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청소년연구원, 1989.
- 김태성, “사회복지발전의 결정요인분석”, 사회복지연구, 제 2호, 1990.
- 김현용, “한국 사회의 변화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개방향”, 한림과학원 편,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나남, 1995.
- 남세진, 인간과 복지, 한울아카데미, 1992.
- 배무기, 노동경제학, 경문사, 1993.
- 송희식, 자본주의 우물을 벗어난 문명사, 모색, 1995.
- 안청시·최일섭 편,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집문당, 1987.
- 양지청, 사회간접자본론, 서울프레스, 1994.
- 어윤배, 복지국가와 중소기업, 책세상, 1994.
- 유은상, 복지국가, 사회주의와 보수주의, 대학촌, 1994.
- 윤영득, 복지경제학, 형설출판사, 1995.
- 이만우, 후생경제학, 태진출판사, 1993.
- 이병천, 박형준 편, 후기자본주의와 사회운동의 전망, 의암출판, 1993.
- 이용교, “청소년 복지”, 중앙대사회복지학과 편, 한국사회복지학의 평가, 한국복지정책 연구소 출판부, 1992.
- 정구현 외, 21세기 한국의 사회발전전략, 나남출판, 1994.
- 정세호, 후생경제학과 후생정책, 비봉출판사, 1992.
- 중앙대사회복지학과 편, 한국 사회복지학의 평가, 한국복지정책연

- 구소 출판부, 1992.
- 한림과학원 편,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나남, 1995.
- Blum, R. N., "Alienation and Socialism", *Soviet Studies in Philosophy*, Vol. 27, No 2, Autumn, 1988.
- Garell, D. G., *Adolescence*, New York : Chelsea House Publishers, 1990.
- George, V., 남찬섭 역,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한울아카데미, 1994.
- Gilbert, N., 정진영 역,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홍익제, 1993.
- Higgins, J., 신섭중 역, 영미의 빈곤정책 비교연구, 대학출판사, 1986.
- Room, G., 인경석 역, 복지사회학,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5.
- Smith, G., *Social Need :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RKP, 1980.
- Timms, N.(ed.), *Social Welfare : Why and How?*, London : RKP, 1980.
- Wellman C., 김만두 역, 복지권론, 홍익제, 1989.
- Wilensky H. L. and Lebeaux, C. N., 장인협 역, 산업사회와 사회복지, 대한교과서출판사, 1979.
- 孝橋正一, 중앙사회복지연구회 역, 현대 자본주의와 사회사업, 이론과 실천, 1991.

부록 I. 설문지

청소년 복지환경에 대한 의식 및 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문화체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금번 저희 개발원에 서는 청소년 복지정책의 하나로 청소년복지환경에 대한 의식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각 질문에는 옳고 그릇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지에 여러분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고 응답내용은 통계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서 얻어진 정보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문항을 끝까지 읽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995. 9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TEL : 578-7926

* 아래의 질문을 잘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번호의 _____에 V표시를 하거나 _____에 의견을 직접 적어 주십시오.

1.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아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있다
 _____ 2) 없다

2. 당신은 복지의 대상으로서 청소년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어떤 청소년도 복지의 대상이 아님
 _____ 2) 장애나 불우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만
 _____ 3) 문제행동이나 비행을 행한 청소년만
 _____ 4) 재수생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청소년만
 _____ 5)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함
 _____ 6) 기타 : _____

3. 당신이 생각하기에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_____ 1) 청소년들의 자율적 활동 공간의 확충
 _____ 2) 청소년 유해환경의 제거
 _____ 3) 문제 및 비행청소년의 선도
 _____ 4)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
 _____ 5) 빈곤한 청소년들을 위한 물질적 혜택
 _____ 6) 비행한 청소년들을 위한 정신적 도움
 _____ 7) 기타 : _____

4. 당신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 중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_____ 1) 청소년들의 자율적 활동 공간의 확충
 _____ 2) 청소년 유해환경의 제거
 _____ 3) 문제 및 비행청소년의 선도
 _____ 4)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
 _____ 5) 빈곤한 청소년들을 위한 물질적 혜택
 _____ 6) 비행한 청소년들을 위한 정신적 도움
 _____ 7) 기타 : _____

5. 다음은 모든 청소년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청소년 운동시설의 확충
☐ 2)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충
☐ 3)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제공
☐ 4) 청소년을 위한 컴퓨터 정보통신 망의 확대
☐ 5) 청소년회관의 증설
☐ 6) 공공 도서관의 건립
☐ 7) 기타 : _____

6. 다음 장소 중 지난 일년간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지 각 장소에 대하여 해당되는 ()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이용 안함	1주일에 1~2회정도	한달에 1~2번정도	한학기당 1~2번이상	1년에 1~2번정도
1) 집근처의 근린공원	()	()	()	()	()
2) 청소년회관	()	()	()	()	()
3) 구민회관	()	()	()	()	()
4) 사회복지회관	()	()	()	()	()
5) 공립미술관	()	()	()	()	()
6) 공공도서관	()	()	()	()	()
7) 학교운동장(개방시간대)	()	()	()	()	()

7. 다음의 장소는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중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가장 활성화되어야 하는 장소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두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 2))

- | | |
|-----------------|-----------|
| 1) 집근처의 근린공원 | 2) 청소년회관 |
| 3) 구민회관 | 4) 사회복지회관 |
| 5) 공립미술관 | 6) 공공도서관 |
| 7) 학교운동장(개방시간대) | |

8. 다음의 활동 중 흥미를 느껴 참여하고 싶은 것을 순서대로 3가지만 고르십시오.

(1), (2), (3))

- | | | |
|---------------|-------------------|----------|
| 1) 사진 | 2) 시간제 일(돈을 벌기위한) | 3) 여행 |
| 4) 스포츠감상 및 활동 | 5) 그림감상 및 제작 | |
| 6) 음악감상 및 연주 | 7) 낚시 | 8) 독서 |
| 9) 춤 | 10) 컴퓨터게임 | 11) TV시청 |
| | | 12) 작문 |

9.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공간)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1)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하다
☐ 2)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 3)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시설이 위치해 있지 않다
☐ 4) 시설(공간)이 너무 좁다
☐ 5) 별 문제가 없다
☐ 6) 기타 _____

10. 다음의 복지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가지만 고르십시오.

- ☐ 1) 근린지역의 잔디구장 확충 및 무료 수영장 운영
☐ 2) 청소년 문화공간의 보호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 3) 청소년을 위한 사회시설 이용료 할인
☐ 4) 실업청소년을 위한 대부제도의 확대
☐ 5) 청소년 취업교실 및 고용기회의 확대
☐ 6) 컴퓨터 정보통신센터의 무료 운용
☐ 7) 청소년 전용방송 매체의 운용
☐ 8) 지역사회 각종 자원의 청소년복지 프로그램의 참여

11. 당신이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음의 청소년정책 중 무엇이 가장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1) 불우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 2) 실업청소년을 위한 취업기회제공
☐ 3) 장애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 4) 청소년 상담 및 선도사업
☐ 5) 청소년 건전활동육성 사업

12. 당신이 생각하기에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면 다음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을 3가지만 선택하십시오.

(1), 2), 3))

- | | | | |
|--------------|---------|---------------|--------------|
| 1) 여행 | 2) 음악감상 | 3) 독서 | 4) 각종의 스포츠활동 |
| 5) 영화감상 | | 6) 컴퓨터게임 및 통신 | |
| 7) 디스코장출입 | | 8) 노래방출입 | |
| 9) 각종 자원봉사활동 | | 10) 종교활동 | |

13. 다음 중 무료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개만 골르십시오.

- ___ 1) 청소년을 위한 음악 및 전시회
- ___ 2) 고궁 및 문화재 관람
- ___ 3) 스포츠시설의 이용
- ___ 4) 디스코장 이용
- ___ 5) 컴퓨터게임 및 통신의 이용
- ___ 6) 청소년을 위한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의 활용
- ___ 7) 여행시 숙박 및 야영시설
- ___ 8) 취업 및 기능 자격증 취득기술습득
- ___ 9) 각종 위락시설의 이용

14. 다음 중 청소년들에게 할인 또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하고 이용 하는데 바람직한 것 두개만 골르십시오.

- ___ 1) 청소년을 위한 음악 및 전시회
- ___ 2) 고궁 및 문화재 관람
- ___ 3) 스포츠시설의 이용
- ___ 4) 디스코장 이용
- ___ 5) 컴퓨터게임 및 통신의 이용
- ___ 6) 청소년을 위한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의 활용
- ___ 7) 여행시 숙박 및 야영시설
- ___ 8) 취업 및 기능 자격증 취득기술습득
- ___ 9) 각종 위락시설의 이용

- *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매우 일치하면 ‘매우 그렇다’의 1에, 어느정도 일치하면 ‘그렇다’의 2에, 잘모르겠으면 ‘잘모르겠다’의 3에, 대체로 일치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의 4에, 다르거나 일치하지 않으면 ‘매우 그렇지 않다’의 5를 선택하여 V표 해주십시오.

1 2 3 4 5

- ☐ ☐ ☐ ☐ ☐ 나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정에 살고 있지 않다.
- ☐ ☐ ☐ ☐ ☐ 부모님은 나를 인정해 준다.
- ☐ ☐ ☐ ☐ ☐ 우리나라는 어느정도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 ☐ ☐ ☐ ☐ ☐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 ☐ ☐ ☐ ☐ 고민이나 갈등을 형제와 잘 의논한다.
- ☐ ☐ ☐ ☐ ☐ 경제적 성장보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평등하게 사는 사회가 더 좋다.
- ☐ ☐ ☐ ☐ ☐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에 적극 후원해준다.
- ☐ ☐ ☐ ☐ ☐ 부모님과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
- ☐ ☐ ☐ ☐ ☐ 다른 사람들을 믿을만 하다.
- ☐ ☐ ☐ ☐ ☐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못해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이 더 좋다.
- ☐ ☐ ☐ ☐ ☐ 부모님간의 사이가 좋다.
- ☐ ☐ ☐ ☐ ☐ 자기만 열심히 일한다면 성공한다.
- ☐ ☐ ☐ ☐ ☐ 아직도 인정이 마르지 않았다.
- ☐ ☐ ☐ ☐ ☐ 우리사회의 갈등은 그리 큰 편이 아니다.
- ☐ ☐ ☐ ☐ ☐ 나의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 ☐ ☐ ☐ 가정은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다.
- ☐ ☐ ☐ ☐ ☐ 나는 우리사회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 ☐ ☐ ☐ ☐ ☐ 부의 정책은 믿을만 하다.
- ☐ ☐ ☐ ☐ ☐ 나는 나의 가정을 사랑한다.
- ☐ ☐ ☐ ☐ ☐ 우리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굶지는 않는다.
- ☐ ☐ ☐ ☐ ☐ 국가는 복지혜택의 기회를 고르게 주고 있는 편이다.
- ☐ ☐ ☐ ☐ ☐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집행된다.
- ☐ ☐ ☐ ☐ ☐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이다.

* 다음은 당신의 개인적인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에 V표 해주십시오.

1. 당신의 성별은?

____ 1) 남 ____ 2) 여

2. 당신의 나이는? 만 _____ 세

3. 당신의 학년은 ? _____ 학년

4. 당신의 집은 경제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1) 잘사는 편이다 ____ 2) 보통이다

____ 3) 어려운 편이다

5. 다음의 보기 중에서 부모님의 직업에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

에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보기 중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면 직접 적어주십시오.

- 1) 농림어업자(농업, 어업, 광업, 축산, 수산양식, 원예업 등)
- 2) 자영업(상점, 음식점, 공장, 운송업 등)
- 3) 판매서비스직(상점이나 음식점의 종업원, 가정부 등)
- 4) 기능직 작업직(공원, 기계조작원, 목공, 운전기사, 건축공 등)
- 5) 사무직 기술직(사무직 사원, 조종사, 항해사, 교사, 보조, 간호원, 군인, 경찰 등)
- 6) 관리 경영직(회사나 은행의 부장급이상,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기업경영자 등)
- 7) 전문직(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교수, 목사 등)
- 8) 주부
- 9) 무직

5-1. 아버지 () 5-2. 어머니 ()

* * 감사합니다 * *

혹시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부록 II. 통계자료

〈부록 표 1〉 집근처의 근린 공원 이용

	이용안함	1주일에 1-2회	한달에 1-2회	한학기당 1-2회	1년에 1-2번	사례수
성별						
남자	37.2%	18.8%	18.8%	11.0%	14.2%	218
여자	43.6%	19.2%	12.8%	7.7%	16.7%	156
소속별						
고등학생	50.7%	11.9%	11.9%	11.9%	13.4%	201
직업전문학생	27.2%	27.2%	21.4%	6.9%	17.3%	173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40.7%	14.8%	11.1%	14.8%	18.5%	27
보통임	38.8%	19.6%	17.0%	9.6%	15.1%	312
어려운편	48.6%	17.1%	14.3%	5.7%	14.3%	35
전체	39.8%	19.0%	16.3%	9.6%	15.2%	374

〈부록 표 2〉 청소년회관 이용

	이용안함	1주일에 1-2회	한달에 1-2회	한학기당 1-2회	1년에 1-2번	사례수
성별						
남자	84.7%	.9%	5.1%	2.3%	7.0%	215
여자	72.3%	3.9%	1.3%	6.5%	16.1%	155
소속별						
고등학생	83.7%	.0%	.5%	3.5%	12.4%	202
직업전문학생	74.4%	4.8%	7.1%	4.8%	8.9%	168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81.5%	3.7%	7.4%	.0%	7.4%	27
보통임	79.0%	2.3%	3.5%	4.2%	11.0%	310
어려운편	81.8%	.0%	.0%	6.1%	12.1%	33
전체	79.5%	2.2%	3.5%	4.1%	10.8%	370

〈부록 표 3〉 구민회관 이용

	이용안함	1주일에 1-2회	한달에 1-2회	한학기당 1-2회	1년에 1-2번	사례수
성별						
남자	81.4%	3.3%	3.3%	1.9%	10.2%	215
여자	69.3%	1.3%	3.3%	3.3%	22.9%	153
소속별						
고등학생	80.1%	.5%	.5%	1.5%	17.4%	201
직업전문학생	71.9%	4.8%	6.6%	3.6%	13.2%	167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74.1%	7.4%	.0%	3.7%	14.8%	27
보통임	77.3%	2.3%	3.2%	2.6%	14.6%	308
어려운편	69.7%	.0%	6.1%	.0%	24.2%	33
전체	76.4%	2.4%	3.3%	2.4%	15.5%	368

〈부록 표 4〉 사회복지회관이용

	이용안함	1주일에 1-2회	한달에 1-2회	한학기당 1-2회	1년에 1-2번	사례수
성별						
남자	87.5%	1.4%	3.7%	.5%	6.9%	216
여자	90.2%	.7%	1.3%	2.6%	5.2%	153
소속별						
고등학생	94.1%	.0%	.5%	1.0%	4.5%	202
직업전문학생	82.0%	2.4%	5.4%	1.8%	8.4%	167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92.3%	3.8%	.0%	3.8%	.0%	26
보통임	89.0%	1.0%	2.6%	1.3%	6.1%	309
어려운편	82.4%	.0%	5.9%	.0%	11.8%	34
전체	88.6%	1.1%	2.7%	1.4%	6.2%	369

〈부록 표 5〉 공립미술관 이용

	이용안함	1주일에 1-2회	한달에 1-2회	한학기당 1-2회	1년에 1-2번	사례수
성별						
남자	74.4%	1.9%	1.4%	5.1%	17.2%	215
여자	67.1%	1.9%	1.9%	5.8%	23.2%	155
소속별						
고등학생	80.1%	1.0%	.0%	4.5%	14.4%	201
직업 전문학생	60.9%	3.0%	3.6%	6.5%	26.0%	169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77.8%	1.1%	.0%	3.7%	7.4%	27
보통임	71.1%	1.3%	1.9%	5.2%	20.5%	308
어려운편	68.6%	.0%	.0%	8.6%	22.9%	35
전체	71.4%	1.9%	1.6%	5.4%	19.7%	370

〈부록 표 6〉 공공도서관 이용

	이용안함	1주일에 1-2회	한달에 1-2회	한학기당 1-2회	1년에 1-2번	사례수
성별						
남자	24.8%	20.6%	21.1%	20.2%	13.3%	218
여자	28.0%	13.4%	17.2%	19.7%	21.7%	157
소속별						
고등학생	29.7%	15.8%	12.9%	22.3%	19.3%	202
직업 전문학생	22.0%	19.7%	27.2%	17.3%	13.9%	173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33.3%	22.2%	18.5%	14.8%	11.1%	27
보통임	26.2%	16.9%	19.5%	20.1%	17.3%	313
어려운편	20.0%	20.0%	20.0%	22.9%	17.1%	35
전체	26.1%	17.6%	19.5%	20.0%	16.8%	375

〈부록 표 7〉 학교운동장(개방시간 내) 이용

	이용안함 1-2회	1주일에 1-2회	한달에 1-2회	한학기당 1-2회	1년에 1-2번	사례수
성별						
남자	19.4 %	41.9 %	20.7 %	8.3 %	9.7 %	217
여자	45.8 %	34.2 %	9.0 %	3.9 %	7.1 %	155
소속별						
고등학생	39.3 %	33.8 %	14.4 %	6.0 %	6.5 %	201
직업전문학생	19.9 %	44.4 %	17.5 %	7.0 %	11.1 %	171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9.2 %	34.6 %	30.8 %	3.8 %	11.5 %	26
보통임	32.8 %	37.6 %	15.1 %	7.1 %	7.4 %	311
어려운편	17.1 %	51.4 %	11.4 %	2.9 %	17.1 %	35
전체	30.4 %	38.7 %	15.9 %	6.5 %	8.6 %	372

〈부록 표 8〉 흥미를 느껴 참여하고 싶은 것(1순위)

	사진	시간제 일	여행	스포츠 감상 및 활동	그림 감상 제작	음악 감상 제작	남시	독서	춤	컴퓨터 게임	TV 시청	작문	사례수
성별													
남자	8.2 %	13.6 %	33.6 %	21.4 %	2.3 %	9.1 %	2.7 %	.9 %	3.2 %	4.1 %	.5 %	.5 %	220
여자	9.6 %	19.7 %	44.6 %	9.6 %	3.2 %	5.7 %	.0 %	.6 %	4.5 %	1.3 %	1.3 %	.0 %	157
소속별													
고등학생	5.4 %	17.8 %	44.6 %	12.9 %	3.5 %	7.9 %	.5 %	.5 %	1.5 %	3.5 %	1.5 %	.5 %	202
직업전문학생	12.6 %	14.3 %	30.9 %	20.6 %	1.7 %	7.4 %	2.9 %	1.1 %	6.3 %	2.3 %	.0 %	.0 %	17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4.8 %	11.1 %	29.6 %	22.2 %	3.7 %	7.4 %	3.7 %	.0 %	.0 %	7.4 %	.0 %	.0 %	27
보통임	8.6 %	16.2 %	40.0 %	15.2 %	2.5 %	7.6 %	1.6 %	1.0 %	3.8 %	2.2 %	1.0 %	.3 %	315
어려운편	5.7 %	20.0 %	28.6 %	22.9 %	2.9 %	8.6 %	.0 %	.0 %	5.7 %	5.7 %	.0 %	.0 %	35
전체	8.8 %	16.2 %	38.2 %	16.4 %	2.7 %	7.7 %	1.6 %	.8 %	3.7 %	2.9 %	.8 %	.3 %	377

〈부록 표 9〉 흥미를 느껴 참여하고 싶은 것(2순위)

	사진	시간제 일	여행	스포츠 감상및 활동	그림 감상 제작	음악 감상 제작	남시	독서	춤	컴퓨터 게임	TV 시청	작문	시례수
성별													
남자	4.5%	11.4%	25.9%	15.9%	5.9%	10.9%	5.5%	5.0%	5.5%	6.4%	2.7%	.5%	220
여자	10.8%	15.9%	20.4%	13.4%	6.1%	14.0%	2.5%	2.5%	7.0%	2.5%	3.8%	.6%	157
소속별													
고등학생	6.9%	18.3%	21.8%	16.3%	2.5%	11.4%	4.0%	4.5%	4.0%	4.5%	5.4%	.5%	202
직업전문학생	7.4%	7.4%	25.7%	13.1%	10.3%	13.1%	4.6%	3.4%	8.6%	5.1%	.6%	.6%	17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0%	14.8%	33.3%	11.1%	.0%	11.1%	7.4%	.0%	3.7%	3.7%	14.8%	.0%	27
보통임	7.6%	12.7%	22.9%	15.9%	6.0%	12.7%	3.8%	4.1%	6.0%	5.1%	2.5%	.6%	315
어려운편	8.6%	17.1%	22.9%	8.6%	11.4%	8.6%	5.7%	5.7%	8.6%	2.9%	.0%	.0%	35
전체	7.2%	13.3%	23.6%	14.9%	6.1%	12.2%	4.2%	4.0%	6.1%	4.8%	3.2%	.5%	377

〈부록 표 10〉 흥미를 느껴 참여하고 싶은 것(3순위)

	사진	시간제 일	여행	스포츠 감상및 활동	그림 감상 제작	음악 감상 제작	남시	독서	춤	컴퓨터 게임	TV 시청	작문	시례수
성별													
남자	3.7%	13.2%	14.2%	15.5%	3.2%	7.3%	11.4%	5.5%	7.8%	9.6%	6.4%	2.3%	219
여자	1.9%	19.1%	12.7%	12.7%	3.8%	9.6%	3.8%	6.4%	10.2%	10.8%	7.6%	1.3%	157
소속별													
고등학생	3.0%	16.3%	10.9%	14.4%	3.5%	6.4%	7.4%	5.0%	9.9%	12.4%	9.4%	1.5%	202
직업전문학생	2.9%	14.9%	16.7%	14.4%	3.4%	10.3%	9.2%	6.9%	7.5%	7.5%	4.0%	2.3%	17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0%	18.5%	7.4%	25.9%	.0%	3.7%	11.1%	7.4%	7.4%	11.1%	3.7%	3.7%	27
보통임	2.9%	16.5%	14.0%	13.3%	3.5%	8.3%	7.6%	6.0%	29.2%	9.8%	7.3%	1.6%	315
어려운편	5.9%	5.9%	14.7%	14.7%	5.9%	11.8%	11.8%	2.3%	5.9%	11.8%	5.9%	2.9%	34
전체	2.9%	15.7%	13.6%	14.4%	3.5%	8.2%	8.2%	5.9%	38.8%	10.1%	6.9%	1.9%	376

〈부록 표 11〉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1순위)

	여행	음악감상	독서	각종 스포츠 활동	영화감상	컴퓨터 게임통신	디스코장 출입	노래방 출입	각종 자원봉사	종교활동	사례수
성별											
남자	69.5%	2.3%	.9%	13.6%	5.5%	5.0%	1.4%	.5%	.5%	.9%	220
여자	74.5%	3.8%	.6%	7.0%	7.6%	1.3%	.6%	1.3%	1.3%	1.9%	157
소속별											
고등학생	68.3%	2.5%	1.0%	9.4%	9.9%	4.0%	1.5%	1.0%	.5%	2.0%	202
직업전문학생	75.4%	3.4%	.6%	12.6%	2.3%	2.9%	.6%	.6%	1.1%	.6%	175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66.7%	7.4%	.0%	11.1%	11.1%	3.7%	.0%	.0%	.0%	.0%	27
보통임	72.7%	2.9%	1.0%	9.8%	6.7%	2.9%	1.3%	.6%	1.0%	1.3%	315
어려운편	65.7%	.0%	.0%	20.0%	.0%	8.6%	.0%	2.9%	.0%	2.9%	35
전체	71.6%	2.9%	.8%	10.9%	6.4%	3.4%	1.1%	.8%	.8%	1.3%	377

〈부록 표 12〉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2순위)

	여행	음악감상	독서	각종 스포츠 활동	영화감상	컴퓨터 게임통신	디스코장 출입	노래방 출입	각종 자원봉사	종교활동	사례수
성별											
남자	13.7%	10.0%	2.3%	34.2%	23.7%	7.8%	5.0%	.5%	2.3%	.5%	219
여자	12.7%	7.6%	2.5%	38.9%	21.0%	3.8%	5.1%	1.3%	7.0%	.0%	157
소속별											
고등학생	15.8%	6.4%	2.0%	34.7%	21.3%	5.9%	7.4%	.5%	5.4%	.5%	202
직업전문학생	10.3%	12.1%	2.9%	37.9%	24.1%	6.3%	2.3%	1.1%	2.9%	.0%	174
경제수준별											
잘사는편	14.8%	14.8%	.0%	48.1%	11.1%	7.4%	.0%	3.7%	.0%	.0%	27
보통임	12.7%	9.2%	2.5%	34.9%	24.4%	5.7%	4.8%	.6%	4.8%	.3%	315
어려운편	17.6%	2.9%	2.9%	38.2%	14.7%	8.8%	11.8%	.0%	2.9%	.0%	34
전체	13.3%	9.0%	2.4%	36.2%	22.6%	6.1%	5.1%	.8%	4.3%	.3%	376

〈부록 표 13〉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3순위)

	여행	음악감상	독서	각종 스포츠 활동	영화감상	컴퓨터 게임통신	디스코장 출입	노래방 출입	각종 자원봉사	종교활동	사례수
성별											
남자	5.9%	6.4%	4.1%	15.5%	26.0%	14.2%	12.8%	4.1%	6.8%	4.1%	219
여자	4.5%	3.8%	3.2%	10.3%	29.5%	9.0%	5.8%	9.6%	20.5%	3.8%	156
소속별											
고등학생	7.0%	5.0%	4.0%	13.4%	27.4%	11.9%	6.5%	6.5%	13.4%	5.0%	201
직업전문학생	3.4%	5.7%	3.4%	13.2%	27.6%	12.1%	13.8%	6.3%	11.5%	2.9%	174
경제수준별											
참사는편	7.4%	11.1%	.0%	7.4%	33.3%	7.4%	11.1%	3.7%	11.1%	7.4%	27
보통임	5.4%	3.8%	3.8%	14.0%	28.0%	12.4%	9.2%	6.7%	13.4%	3.2%	314
어려운편	2.9%	14.7%	5.9%	11.8%	17.6%	11.8%	14.7%	5.9%	5.9%	8.8%	34
전체	5.3%	5.3%	3.7%	13.3%	27.5%	12.0%	9.9%	6.4%	12.5%	4.0%	375